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예비부모들의
영유아기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박 지 은

2012년 8월

예비부모들의 영유아기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

지도교수 박정환

박지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박지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년 8월

【국문초록】

예비부모들의 영유아기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

박 지 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지도교수 박 정 환

이 연구¹⁾는 예비부모들이 자녀교육에 어떠한 관심을 보이는지, 예비부모의 역할, 예비부모들이 요구하는 교육내용, 보육·교육기관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부모 됨과 역할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예비부모들 4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대하는 자녀수는 '2명', '3명'의 응답률이 많았고 원하는 성별은 '성별에 상관없다'의 응답률이 많았다. 자녀가 필요한 이유는 '일차집단의 유대감', '창조·성취감'으로 나타났으며, 원하는 자녀교육형태는 '기관과 부부(부모)'와 '부부(부모)'의 항목의 선택이 많았다. 예비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은 '인성'과 '건강 및 안전' 항목의 선택이 많았으며 가장 우선해야 하는 교육은 '기본생활습관'과 '인성교육'이었다. 알맞다고 생각하는 한 달 사교육비는 '50만원 이하'이며, 아이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부모의 교육·양육법'을 선택하였다.

둘째, 예비부모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이 동등하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은 다르게 보았다. 자녀 교육 시 가장 힘들 것이라 생각하는 항목은 '경제적 부담'이라고 응답하였다. 셋째, 예비부모교육은 필요하며, 그 이유는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 '자녀의 재능을 찾아주기 위하여'였다. 예비부모교육의 내용은 '자녀와 의사소통방법'과 '아동발달 지도법'을 선택하였다. 예비부모교육방법은 '전문강좌(특강)', '인터넷, TV프로그램 등 매체를 통해'라는 응답을 하였으며, 긍정적인 참여의지를 나타내었다. 넷째, 교육하기를 바라는 내용은 '인성'과 '기본생활습관'을 선택하였고,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교사'라는 응답이었으며, 기관에 보내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와 '전문적인 가르침'을 선택하였다.

1) 이 논문은 201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부모들은 영유아기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교육·양육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보를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모의 교육과 양육법은 영유아기 자녀들이 자라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비부모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교육과 양육법을 숙지하여야 할 것이며, 좀 더 나아가 자녀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둘째, 예비부모는 부모가 되는 과정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건강과 영양관리, 의논상대 및 친구의 역할과 더불어 경제적 지원, 훈육적,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 등 부모의 역할을 숙지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하는 마음가짐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셋째, 예비부모교육의 적절한 내용, 방법, 시기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된다면 예비부모들이 부모가 되기 전 많은 정보를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영·유아기의 보육과 교육의 시설확충, 질적·양적인 개선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며, 부모들이 보육·교육기관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주어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문제 및 연구내용	3
3.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1. 예비부모의 역할	5
2. 영유아기 보육·교육과 발달	7
3. 예비부모교육	9
4.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11
5. 선행연구의 고찰	12
III. 연구방법	15
1. 연구대상	15
2. 연구도구	16
3. 연구절차	17
4. 자료분석	17
IV. 연구결과 및 해석	18
1. 예비부모들의 영유아기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	18
2. 예비부모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	35
3.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41
4. 예비부모들의 자녀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인식	50
V. 논의, 결론 및 제언	57
1. 논의	57

2. 결론 및 제언	63
참고문헌	65
ABSTRACT	68
부 록	70

표 목 차

<표III-1> 응답자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	15
<표III-2> 설문지의 영역별 문항 구성	16
<표IV-1>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기대하는 자녀의 수	18
<표IV-2>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기대하는 자녀의 수	19
<표IV-3>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원하는 자녀의 성별	19
<표IV-4>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원하는 자녀의 성별	20
<표IV-5>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자녀필요이유	20
<표IV-6>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자녀필요이유	21
<표IV-7>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원하는 자녀교육 형태	21
<표IV-8>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원하는 자녀교육 형태	22
<표IV-9>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가장 중요한 교육	23
<표IV-10>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가장 중요한 교육	24
<표IV-11>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가장 우선해야하는 교육	24
<표IV-12>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가장 우선해야하는 교육	25
<표IV-13>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기본생활습관과 인성교육의 방법	25
<표IV-14>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기본생활습관과 인성교육의 방법	26
<표IV-15>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한 달 사교육비	26
<표IV-16>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한 달 사교육비	27
<표IV-17>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아이의 장래희망	28
<표IV-18>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아이의 장래희망	28
<표IV-19>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아이에게 가장 많은 영향의 원인	29
<표IV-20>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아이에게 가장 많은 영향의 원인	29
<표IV-21> 성별·혼인여부에 따른 부모기의 통념	30
<표IV-22> 학력수준·직업에 따른 부모기의 통념	31
<표IV-23> 거주지·월평균소득에 따른 부모기의 통념	33
<표IV-24>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인식	35
<표IV-25>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인식	36
<표IV-26>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인식	37

<표IV-27>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인식	38
<표IV-28>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자녀교육책임에 대한 생각	39
<표IV-29>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자녀교육책임에 대한 생각	39
<표IV-30>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자녀교육시 가장 힘들 것	40
<표IV-31>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자녀교육시 가장 힘들 것	40
<표IV-32>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예비부모교육 필요여부	42
<표IV-33>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예비부모교육 필요여부	42
<표IV-34>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예비부모교육 필요이유	42
<표IV-35>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예비부모교육 필요이유	43
<표IV-36>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예비부모교육 참여의지	44
<표IV-37>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예비부모교육 참여의지	44
<표IV-38>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원하는 예비부모교육 내용	45
<표IV-39>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원하는 예비부모교육 내용	45
<표IV-40>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원하는 예비부모교육 방법	47
<표IV-41>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원하는 예비부모교육 방법	47
<표IV-42>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예비부모교육시 중요한 것	48
<표IV-43>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예비부모교육시 중요한 것	48
<표IV-44>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예비부모교육 적절시기	49
<표IV-45>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예비부모교육 적절시기	49
<표IV-46>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중요한 기관교육내용	50
<표IV-47>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중요한 기관교육내용	50
<표IV-48>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기관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52
<표IV-49>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기관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52
<표IV-50>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기관에 원하는 교육법	53
<표IV-51>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기관에 원하는 교육법	53
<표IV-52>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기관에 보내는 이유	54
<표IV-53>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기관에 보내는 이유	54
<표IV-54>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기관선택시 중요점	56
<표IV-55>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기관선택시 중요점	5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이 태어나 가장 먼저 접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켜주는 곳이 가정으로 가정에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과 내부·외부적 환경에 따라 자녀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다양한 생활환경 등에 의해 사회화, 성격, 가치관 등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문옥·심미영(2011)의 연구에서 자녀를 한 명만 계획하고 있는 이유는 과도한 사교육비 등 경제적으로 부담,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 자녀로 인해 개인적 시간이나 활동의 제약이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남아선호사상, 가부장제도 등 대가족 시대의 보편적인 자녀 양육, 교육과는 달리 현대에는 가정의 규모가 핵가족화 되고 맞벌이하는 부모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녀를 양육·교육하는 부모들은 환경적, 시간적,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양육부담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낳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양육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체계적인 보육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과 유아교육기관의 증설이 필요하다(우남희·김영심·이은정·김현신, 2009)고 본다. 김하림(2010)의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목적은 맞벌이 부모로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잡코리아에서 2012년 2월 13일 발표한 설문조사결과 미취학 자녀를 둔 직장인 166명중 58.4%가 '육아 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평균 427만원의 소득에 비해 양육비가 평균 28%에 달한다고 응답하여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가정에서의 영·유아기의 자녀양육부담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는 등 자녀의 양육·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이러한 환경속에 있는 예비부모들의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또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그 기대수준은 어머니로 하여금 양육상황과

맥락에 적합한 부모역할을 수행해야 할지에 대한 그 방향을 정하는데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며(김민정, 2011),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할을 인식하는 것은 자녀의 모든 영역발달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촉진될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정미애, 2010). 유아기 자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이러한 부모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한다.

김남희(2010)의 연구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기 위해 참여했다는 대다수 의견과 부모교육이 자녀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정책 연구소의 예비부모교육 실태와 내실화 방안 연구(2010)에 따르면 예비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기회의 확대와 접근성이 증대되고,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현재 교육기회나 프로그램은 불충분하며 지속적이지 않다는 의견이며 구체적으로 온라인이나 비형식적 교육보다는 프로그램화된 형식적 교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하고, 학교나 지역센터, 종교, 사회단체 등 일정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 실질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문서적처럼 교과서적으로 짜여진 프로그램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어떠한 교육내용이 절실하게 필요한지와 더불어 예비부모교육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김미와(2005)의 연구에서 유아교육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유아교육기관이 필요하다 하였다. 배지희·황인애·탁옥경(2007)의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자녀를 돌보는 일에 할애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생활의 영위를 위한 일시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강하고, 육아 및 교육지식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성희·유영달(2006)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라는 사회변화 속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전담 보육시설 종사자들과 베이비시터들에게 영유아기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지적 발달의 중요성과 이를 위해 필요한 신체적 정서적 돌봄의 기술과 의미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성림(2011)은 유치원 등의 시설을 통한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놀이방과 유치원은 엄마가 취업한 일부 가게만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영유아 가게가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다. 영유아 자녀들을 보육·교육함에 있어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은 많은 부모들이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기관 선택에 있어 부모들이 인식하는 교육내용이나 영향을 주는 것, 교육법, 기관에 보내는 이유 등 중요한 사항 등을 알아보려고 한다.

환경적,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예비부모들은 애착과 보살핌이 가장 중요할 영유아기 시기의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 부모 됨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예비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과 역할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알아간다면 자녀들에게 필요로 하는 충분한 역할을 해낼 수 있으리라 본다. 영유아기 자녀들을 둔 예비부모들에게서 자녀교육과 부모의 역할, 예비부모교육과 유아교육기관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예비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를 통해 예비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만나는 과정이 좀 더 편안하고 즐거워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예비부모들의 영유아기 자녀교육과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과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인식 등 영유아기 자녀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예비부모들의 영유아기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려 한다.

2. 연구의 문제 및 연구내용

이 연구 문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모 됨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예비부모들의 영유아기 시기 자녀들에 대한 전반적인 양육과 교육에 대한 인식과 부모의 역할, 자녀를 위해 요구하는 교육내용·방법과 더불어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예비부모들의 영유아기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예비부모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넷째, 예비부모들의 자녀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예비부모들이 영유아기 자녀교육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와 예비부모의 역할,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알 수 있으나,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므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표집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예비부모들의 인식과 역할에 대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개별 면담의 방법이 아니므로 심층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예비부모들의 영유아기 자녀교육에 대한 조사를 설문지에만 의존하였다.

셋째, 설문의 영역은 연구자가 미리 설정하고 그에 대한 하부항목에 대해서만 질문하였으므로 연구자가 설정하지 않은 영역에 대한 예비부모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와 임신을 한 예비부모들에게 병원(산부인과)에서 만나 설문지를 부탁드렸으나 많은 임산부들이 심신의 불편함으로 설문하기를 꺼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기에 대학생의 집단에서 표본이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Ⅱ. 이론적 배경

1. 예비부모의 역할

1) 예비부모

조복희·현은강(1994)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부모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준비과정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았으며, 이병래(1991)는 발달적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자아정체성의 형성으로 구체적인 부모 됨의 욕구가 생기게 되는 시기이므로 결혼 전 교육을 받기에 적합한 수혜자라고 했다. 부모 됨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부모의 역할에 대해 교육을 받아 자녀를 낳아 기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자들을 예비부모라 하며, 부모가 되기 전의 미혼의 남성, 여성과 결혼 후 신혼부부들과 첫째아를 임신하여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2) 부모 됨의 동기

남녀 대학생의 부모 됨에 대한 인식에 대해 대부분의 남녀대학생 모두가 결혼하여 자녀를 갖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됨의 동기에 대해서는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성숙한 부모 되기와 자녀를 키우는 재미가 가장 중요한 동기로 인식하는 수 있으나, 자녀를 키우며 재미를 주고 개인의 성숙한 자아를 실현하는 필수적인 사항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예비부모들에게 좀 더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이에 자녀출산이라는 부모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예비부모들은 부모가 되기 전에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 및 교육법을 배우는 과정을 겪음으로서 부모로 더욱 성숙하게 될 것이다.

3) 부모의 역할

부모의 역할은 성인의 과업 중 가장 도전적이고 복잡한 것이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교사로서 자녀의 사회화, 학교와 사회에서 형성해야 할 정서적·정신적 기초를 만들어야 할 책임을 갖는다. 특히 유아기 자녀는 환경에 가장 민감하고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위한 결정적 시기에 있으므로(Bigner, 2002; Kagan, 1995), 이 시기의 부모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자형(2005)은, 영유아기의 부모의 역할을 양육·보호·훈육, 신뢰감 형성을 돕고, 발달 자극의 제공과 더불어 자아 개념 발달의 촉진·주도성 발달·학습경험을 제공하며, 사회발달과 인지발달을 돕는 것이라고 보았다. 부모의 역할은 일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동시에 자녀의 연령과 함께 융통성 있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시기적절한 부모역할의 탐색 및 이를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강경희, 2008)고 보았다. 이문옥·심미영(2011)은 예비부모가 인식하는 부모의 역할에서 엄마는 감성적인 부분과 세심함, 아빠는 울타리로 가장의 역할을 하지만 그 역할을 특별히 나누기 보다는 융통성 있게 무엇이든 함께 하며, 아이의 삶에 친구와 같은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유경애(2003)는 자녀양육은 부모 모두 공동의 책임이라 응답하였고 아버지의 가장 큰 역할이 경제적 지원 등의 도구적 역할이며, 어머니의 가장 큰 역할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실제적 역할로 응답하였다.

박성옥·강영자(2005)는 부모역할의 중요도와 수행의 어려운 정도에서는 사회규범과 가치관, 바른생활습관 양성과 같은 훈육 및 생활지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았고, 사회성, 정서, 교육환경 제공과 같은 성장, 발달을 위한 활동에 대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성연·유은희·한상미(2002)는 아버지는 육아에 지친 어머니를 위로하고 지지해줌으로써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고, 아버지는 아이를 돌보는 일을 주로 하는 어머니와는 달리 아이와 함께 놀아줌으로써 아이에게 보다 재미있고 유익한 경험, 질적으로 다른 경험을 주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부모의 역할에 있어 예비아버지와 예비어머니는 자녀양육을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부모의 책임에 최선을 다하며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성숙 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과 조언, 역할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부모기에 대하여 부모의 역할을 인식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예비부모들의 부모 됨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알면서도 부모 됨에 대한 준비와 자세는 미흡하고 부모역할 수행능력도 많이 부족하다. 많은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예비부모교육” 과정을 개설하지만 필수적인 교과가 아닌 이상 관심이 많은 학생에 한해서 수강을 할 것이며, 이러한 과목을 수강한다 하더라도 강좌가 전문적이지 못하며 실질적이고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하다. 영유아기(0세에서 미취학아동)에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이며,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이다. 하지만 부모의 역할을 찾아 자녀들의 교육에 도움을 주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며, 특히 예비부모들에게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2. 영유아기 보육·교육과 발달

1) 영유아기 자녀의 보육·교육

유충석(2003)은 보육이 필요한 사항을 첫째, 어머니의 취업 둘째,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어 부담이 되는 경우 셋째, 빈곤가정에서 태어나 학령전기에 필요한 정상적인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할 위험이 있는 영유아를 위한 경우 넷째,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장애가 있는 경우 다섯째, 어머니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가정조성사업의 대안으로 제공 여섯째, 심각하게 박탈당한 가정환경에 대한 치료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어 아동 개개인의 요구와 능력, 가족상황 및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창조적이고 융통성 있게 다루어질 때 사회 여러 계층의 가정생활을 지지하고 강화하고, 인력개발 및 국가경제의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임을 담당하게 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1382호) 제2조에서는 “영유아”라 함은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또한 우리나라 유아교육법(법률 제11382호) 제2조에서는 “유아”라 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며, “교육”은 교육기본법(법률 제8915호)을 중심으로 제2조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引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유아기 자녀의 보육·교육은 태어나서 취학 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들이 한 자녀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발달 특성에 맞게 안전한 생활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듯 아이들에게 보호와 교육적인 측면에서 물질적·정신적·육체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올바르게 성장·발달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영유아기 발달

권중돈·김동배(2010)는 발달이란 인간의 수정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에 걸쳐서 신체, 심리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질서정연하고 연속적이며 상승적 또는 퇴행적 변화과정을 의미하며, 유전적 요인과 환경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개체가 생명활동에 있어서 그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라 하였다. 조복희(2011)는 이 시기의 양육자로부터의 적절한 보살핌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성장 장애와 정상적인 두뇌 발달을 방해받을 수 있으며, 그런의미에서 영유아기의 경험적 결핍은 이후 성장을 가로 막는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국가의 경제적 손실이라는 점을 통계적으로 환산하게 되는 시점에 이르렀기에 이 시기의 경험적 결핍이 있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순용(2011)은 성장(growth)과 발달(development)을 비교하면 성장은 신체 크기의 증대 근육증가, 인지의 확장 등과 같은 양적 확대를 의미하며 발달은 전 생애를 포함하며 특히 어린 시기의 발달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또한 발달은 유아기에서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점진성과 상승성을 띠게 되므로 향동의 양상 곧, 심리적 기능면에서의 올바른 방향으로의 지도가 상당히 요구된다고 보았다.

영유아기의 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 신체와 사회적 측면이나 심리적 측면에서 양적·질적 확대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 영유아기의 발달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두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모들이며, 영유아기가 자녀 발달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는 것과 영유아에 대한 양육의 중요성을 숙지하여 이 시기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발달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3. 예비부모교육

1) 예비부모교육의 정의

조복희·현은강(1994)은 자녀의 출산은 부부의 의사결정으로 간주되지만 아이를 갖는 것은 당연하며 첫 자녀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심리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부부가 부모가 되면 당연히 많은 어려움과 직면할 것이라고 보았고, 김남희(2010)는 부모교육은 효과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기관과의 적극적 상호작용을 통해 그 지침과 정보등을 습득하는 방법과 관련된 모든 제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자녀양육과 교육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부모들이 그들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충분히 잘 발휘하여 부모와 자녀 양쪽 모두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전적 의미로 부모교육은 유치원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모들에게 아동발달·교육과정 등을 알려주고, 가정에서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교육으로 부모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에 통합되기도 하지만 부모로서 효율적인 양육태도 및 방법을 지니도록 교육하는 것을 일컫는다. 신생아 교육법, 영아 및 유아를 위한 부모교육, 분만예정 산모를 위한 교육,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 보조자 역할을 위한 교육, 청소년을 가진 부모를 위한 교육 등 발달단계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부모 됨을 생리적인 견지에서만 보지 않고 전문직으로 보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모교육의 내용을 기본으로 예비부모교육이란 예비부모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이라 할 수 있으며, 예비부모들 자신들을 위한 배움의 과정임과 동시에 자녀들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도움이 되는 모든 지식과 행동을 교육의 과정으로 연결하여 제공하는 방법이다.

2)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

허영림(2007)은 첫째, 부모가 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 교육의 필요성 둘째, 부모에 의해 출산된 아이의 발달과 복지의 입장에서 본 부모교육의 필요성 셋째, 아동과

부모가 건강하게 될 때 사회가 건강하게 된다는 입장에서 본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예비부모교육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하는 여러 이유를 육아정책연구소의 김은설·최윤경·조혜주·김선화(2010)는 모든 국민에게 국가인적자원인 다음세대를 건전하고 역량있게 키워 갈 수 있는 바람직한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적 지식과 정보를 미리 제공할 필요가 있고 부모 됨의 의미를 생각함으로써 개인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이를 통해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알게 되는 기회를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부터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예비부모교육은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이나 방법을 습득하며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교육이다. 예비부모교육은 자신이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자아의 성숙함을 목적으로도 필요로 하며,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알아가고 배움으로써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에 필요성을 강조한다.

3) 예비부모교육의 내용

김정미(2005)는 대학 정규과정에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있어서나, 개인의 발달 심리적 요구에 있어서 매우 필요하며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가치 및 태도, 기술의 내용요소가 균형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유경애(2003)는 학생들이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요구에 부응하여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인식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고 급변하는 시대에 올바른 가정을 확립시키고 나아가 가정의 해체, 문제아동, 미혼모, 청소년문제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리라 사료된다고 보았다. 이문옥·심미영(2011)의 연구에서 예비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의 내용은 바람직한 양육관 및 양육태도에 대한 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영유아기 자녀의 발달적 특징과 부모역할, 가족 간 효율적인 의사소통방법, 성격유형 분석을 통한 자신의 이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포함하여 결혼 전, 결혼 후의 예비부모들은 다양한 방법과 내용의 교육을 원한다. 부모가 되어 영유아의 성장과 성숙발달에 있어 자녀양육·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것을

예비부모교육의 내용으로 정해야 한다. 예비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의 내용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것이며, 아직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미숙한 예비부모들에게는 자녀양육·교육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4.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는 교사와 긴밀하고 다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상적인 유아교사는 유아에게 언어적 자격이나 인지적 학습 환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보살핌이나 사회성 발달을 위한 역할을 지지함으로써 유아가 가족구성원 이외의 성인과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변상아, 2009).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1382호)에서 말하는 영유아 보육기관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의 “어린이집”을 말한다. 또한 유아교육법(법률 제11382호)에서의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인 “유치원”의 유아교육기관을 칭한다.

이를 종합하면,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유아교육기관을 모두 칭하는 기관을 말한다.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은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자격과 기준들에 대해 영유아의 보호와 안전과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은 영유아기 자녀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여 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마련하고 필요요구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다.

5. 선행연구의 고찰

이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결과를 고찰하였다.

이문옥·심미영(2011)은 우리나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관련지어 결혼 후 현재 자녀가 없는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예비부모의 자녀출산, 양육관 및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에 대해 출산 계획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 이유는 자녀가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즐겁고, 자녀를 낳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며, 형제자매가 있으면 좋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비부모교육은 대부분 필요하다는 응답이었다.

황운세(2005)는 대학생들의 부모 됨에 대한 이해와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2명의 자녀를 기대하고, 성별에 상관없으며, 부모 됨에 대한 동기는 창조·성취감요인으로 나타났고, 부모로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성림(2011)은 영유아 자녀를 둔 가계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 이용 현황과 지출 부담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영유아 가구의 약 51.02%는 어린이집과 놀이방 서비스를, 약 22.79%는 유치원을 이용하며 사교육을 받는 경우도 47%를, 가족과 친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 13.44%정도에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가구는 전체의 17.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애(2003)는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연구대상 학생들이 대부분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부모로서의 전문적 자질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남녀학생 모두가 자녀양육은 부모 모두 공동의 책임이며, 아버지의 가장 큰 역할은 경제적 지원 등 도구적 역할로 응답하고 어머니의 가장 큰 역할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실제적 역할로 보았다.

이순용(2011)은 부모의 보육서비스 만족도와 보육욕구에 관해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보육과정을 다양화하고, 모든 시설이용 아동에게 무상보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재정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보육의 질 강화와 보육교사의 자질의 향상 등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정미애(2010)는 유아기 부모의 부모교육 및 자녀양육 정보 요구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아버지 집단은 시간이 없어 부모교육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적은 시간을 이용한 교육과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 소집단을 형성하여 양육에 대한 부모교육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부모교육에 직접 참여하기 힘든 아버지들을 위해 가정통신문, 어린이집 홈페이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은설·최윤경·조혜주·김선화(2010)는 예비부모교육의 내실화 방안으로 예비부모교육의 우선적 확대를 대학생들의 교육내용 측면의 아동발달이론이나 지식적인 측면의 심층 내용에 대한 흥미가 높아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양육'이라는 문제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영유아를 돌보는 방법, 부모의 영향력, 결혼과 가정의 영유 등 현실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양육 실습을 포함하는 것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김미와(2005)는 전체적으로 유아교육기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올바른 자녀교육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아교육기관의 부모교육이나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또한 대부분 필요하다고 보았다.

허영림(2007)은 예비부모들인 남녀 대학생들이 가까운 장래에 수행하게 될 부모역할과 함께 합리적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이면서 구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예비부모교육 내용으로는 임신 중의 관리, 분만, 영아돌보기, 양육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이 재조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세영·김기원·김주연·김연화·김지윤·안수희(2008)는 첫아이를 임신한 예비어머니들은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요구도가 높은 편이었고, 아동발달과 양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이로 인해 양육태도, 아동발달특징, 아동과의 의사소통, 아버지역할 및 부부관계의 중요성 등의 영역에 대해 부모교육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들을 위해 아동발달과 양육 및 부부관계에 관한 지식을 통합하는 부모교육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주연·이석호(2010)는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정보 습득과 양육지식 연구에서 영아기 및 걸음마기 첫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의 경우 주변인,

인터넷, 책, 부모 등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배지희·황인애·탁옥경(2007)은 영유아기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에 대한 전업주부의 요구의 연구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자녀를 돌보는 일에 할애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생활의 영위를 위한 일시보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강하고, 육아 및 교육지식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통해 예비부모들의 자녀교육에 관한 여러 인식들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 논문들을 바탕으로 예비부모들의 영유아기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부모 됨의 역할에 대해 재조명하여 부모 됨과 역할에 대해 예비부모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리라 본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총 415명에 해당하는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여자(예비어머니) 295명(71.1%), 남자(예비아 아버지) 120명(28.9%) 순이었다. 혼인여부로 보았을 때 미혼 348명(83.9%), 결혼(신혼부부 및 결혼 후 첫째아 임신 중) 67명(16.1%)이었으며, 거주지로는 제주시동지역 273명(65.8%), 기타지역 76명(18.3%), 서귀포동지역 66명(15.9%)로 나타났고, 학력으로는 고졸 및 대학재학 246명(59.3%), 대학교 졸업 169명(40.7%), 직업으로는 대학생 233명(56.1%), 그 외 182명(43.9%), 월평균 소득으로는, 소득이 없는 '0'에 해당하는 경우 240명(57.8%), 100만원 이상으로 104명(25.1%), 1-100만원 미만은 71명(17.1%) 순으로 나타났다.

<표Ⅲ-1> 응답자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	120	28.9
	여	295	71.1
혼인여부	미혼	348	83.9
	결혼	67	16.1
거주지	제주시동지역	273	65.8
	서귀포동지역	66	15.9
	기타	76	18.3
학력	고졸&대학재학	246	59.3
	대학교졸업	169	40.7
직업	대학생	233	56.1
	그 외	182	43.9
월평균소득	0	240	57.8
	1-100미만	71	17.1
	100만원 이상	104	25.1

2. 연구도구

유경애(2003)의 오산대학생들의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의 연구와 황운세(2005)의 대학생들의 부모 됨에 대한 이해와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도 조사, 김지은(1999)의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도에 관한 연구, 우남희·김영심·이은정·김현신(2009)의 저 출산 시대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한국 어머니들의 인식 및 실태 조사결과의 내용을 참고하고 수정하는 등 기존의 논문과 전문 서적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1차 설문지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지도교수의 내용 검토와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최종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지 구성내용은 기초조사 8문항, 예비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에 관한 조사 12문항, 예비부모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관한 조사 3문항,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에 관한 조사 7문항, 예비부모들의 자녀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인식에 관한 조사 5문항으로 조사 후 필요한 항목에 따라 작성하였다.

본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Ⅲ-2> 설문지의 영역별 문항 구성

대상	문항내용		문항수
예비부모	기초조사	연령,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학력, 직업형태, 월평균소득, 가구 월평균 소득	8
	예비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	자녀 수, 성(性)에 대한 태도, 필요이유, 부모기 통념, 자녀교육 형태, 중요한 점, 우선시 되어야 할 교육, 기본생활습관 및 인성교육의 방법, 필요한 사교육, 자녀교육의 한달비용, 장래희망, 영향을 주는 것	12
	예비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	자녀교육 책임, 부모의 역할, 가장 힘든 것	3
	예비부모교육 인식	필요여부, 필요이유, 참여의향, 교육내용, 교육방법, 예비부모교육에서 중요한 점, 적절한 시기	7
	예비부모들의 자녀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인식	교육하기를 바라는 분야, 기관에서 많은 영향, 교육법, 기관에 보내는 이유, 기관선택관시 가장 중요한 점	5

3. 연구절차

2011년 12월 10일 ~ 2012년 2월 29일 사이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교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으며, 예비부모의 여부를 판단하여 직접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법과 E-mail로 배부하고 E-mail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회수된 총 420부의 설문자료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5부를 제외하고 총 41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Ver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처리하였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둘째, 이 외의 각 변인 사이의 관계는 교차분할분석(Crosstabs)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부모기 통념에 대한 각 변인 간 차이 검증을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 Way-ANOVA)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이 연구는 예비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교육에 어떠한 관심을 보이는지와 예비부모의 역할, 예비부모들이 요구하는 예비부모교육의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자녀들의 보육·교육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의 내용을 알아보고, 부모 됨과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고 설문조사 하였다.

1. 예비부모들의 영유아기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

예비부모들의 영유아기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기대하는 자녀의 수, 원하는 자녀의 성별, 자녀필요이유, 원하는 자녀교육 형태, 가장 중요한 교육, 가장 우선해야하는 교육, 기본생활습관과 인성교육의 방법, 한 달 사교육비, 아이의 장래희망, 아이에게 가장 많은 영향의 원인, 부모기의 통념에 대해서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으로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IV-1>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기대하는 자녀의 수

구분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전체
	남성	여성	미혼	결혼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기타	
1명	11 (9.2)	22 (7.5)	27 (7.8)	6 (9.0)	24 (8.8)	0 (.0)	9 (11.8)	33 (8.0)
2명	67 (55.8)	162 (54.9)	203 (58.3)	26 (38.8)	147 (53.8)	40 (60.6)	42 (55.3)	229 (55.2)
3명	33 (27.5)	89 (30.2)	93 (26.7)	29 (43.3)	84 (30.8)	20 (30.3)	18 (23.7)	122 (29.4)
4명 이상	9 (7.5)	22 (7.5)	25 (7.2)	6 (9.0)	18 (6.6)	6 (9.1)	7 (9.2)	31 (7.5)
전체	120 (100.0)	295 (100.0)	348 (100.0)	67 (100.0)	273 (100.0)	66 (100.0)	76 (100.0)	415 (100.0)
$\chi^2(df)$.533(3) .912		9.460(3)* .024		9.235(6) .161			

* P<.05

<표 IV-2>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기대하는 자녀의 수

구분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전체
	고졸&대학재학	대학교졸업	대학생	그 외	0	1-100 미만	100 이상	
1명	17 (6.9)	16 (9.5)	17 (7.3)	16 (8.8)	17 (7.1)	7 (9.9)	9 (8.7)	33 (8.0)
2명	139 (56.5)	90 (53.3)	135 (57.9)	94 (51.6)	141 (58.8)	37 (52.1)	51 (49.0)	229 (55.2)
3명	68 (27.6)	54 (32.0)	63 (27.0)	59 (32.4)	60 (25.0)	25 (35.2)	37 (35.6)	122 (29.4)
4명 이상	22 (8.9)	9 (5.3)	18 (7.7)	13 (7.1)	22 (9.2)	2 (2.8)	7 (6.7)	31 (7.5)
전체	246 (100.0)	169 (100.0)	233 (100.0)	182 (100.0)	240 (100.0)	71 (100.0)	104 (100.0)	415 (100.0)
χ^2 (df)	3.404(3) .333		2.072(3) .558		8.808(6) .185			

예비부모들의 기대하는 자녀의 수는 <표 IV-1>, <표 IV-2>에 제시한 바와 같이, 혼인여부($\chi^2=9.460$, $p<.05$)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대하는 자녀수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총 415명 중 229명(55.2%)이 '2명'을 선택하였고, 122명(29.4%)은 '3명'을 선택하여 기대하는 자녀수의 응답에 351명(84.6%)이 '2명'과 '3명'을 선택하였다. 미혼과 결혼의 집단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면, 미혼 집단에서 203명(58.3%)이 '2명'을, 93명(26.7%)이 '3명'을 선택하였고, 결혼 집단에서 29명(43.4%)이 '3명', 26명(38.8%)이 '2명'을 선택하여 자녀의 수에 대해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2~3명을 기대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원하는 자녀의 성별

구분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전체
	남성	여성	미혼	결혼	계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기타	
성별에 상관없다	85 (70.8)	227 (76.9)	266 (76.4)	46 (68.7)	208 (76.2)	49 (74.2)	55 (72.4)	312 (75.2)
아들을 더 원한다	8 (6.7)	14 (4.7)	18 (5.2)	4 (6.0)	14 (5.1)	4 (6.1)	4 (5.3)	22 (5.3)
딸을 더 원한다	27 (22.5)	54 (18.3)	64 (18.4)	17 (25.4)	51 (18.7)	13 (19.7)	17 (22.4)	81 (19.5)
전체	120 (100.0)	295 (100.0)	348 (100.0)	67 (100.0)	273 (100.0)	66 (100.0)	76 (100.0)	415 (100.0)
χ^2 (df)	1.787(2) .409		1.923(2) .382		.627(4) .960			

<표IV-4>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원하는 자녀의 성별

구분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전체
	고졸&대학재학	대학교졸업	대학생	그 외	0	1-100 미만	100 이상	
성별에 상관없다	194 (78.9)	118 (69.8)	186 (79.8)	126 (69.2)	179 (74.6)	59 (83.1)	74 (71.2)	312 (75.2)
아들을 더 원한다	13 (5.3)	9 (5.3)	13 (5.6)	9 (4.9)	14 (5.8)	2 (2.8)	6 (5.8)	22 (5.3)
딸을 더 원한다	39 (15.9)	42 (24.9)	34 (14.6)	47 (25.8)	47 (19.6)	10 (14.1)	24 (23.1)	81 (19.5)
전체	246 (100.0)	169 (100.0)	233 (100.0)	182 (100.0)	240 (100.0)	71 (100.0)	104 (100.0)	415 (100.0)
$\chi^2(df)$	5.245(2) .073		8.209(2)* .017		3.575(4) .467			

*P<.05

<표IV-3>에서는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원하는 자녀의 성별에 대하여 카이제곱으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IV-4>에서 학력과 월평균소득에 따른 원하는 자녀의 성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직업에 따른 원하는 자녀의 성별의 질문에 전체 312명(75.2%)이 '성별에 상관없다'고 선택한 것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chi^2=8.209$, $p<.05$), 두 번째로 81명(19.5%)이 '딸을 더 원한다'고 선택하였다. 직업별 집단으로 살펴보면, 대학생 집단이 '성별에 상관없다'고 186명(79.8%), '딸을 더 원한다'고 34명(14.6%), '아들을 더 원한다'고 13명(5.6%)이 선택하였다. 대학생 외 집단에서는 '성별에 상관없다' 126명(69.2%), '딸을 더 원한다' 47명(25.8%), '아들을 더 원한다' 9명(4.9%)이 선택하였다.

<표IV-5>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자녀필요이유

구분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전체
	남성	여성	미혼	결혼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기타	
전통적가치	7 (5.8)	11 (3.7)	14 (4.0)	4 (6.0)	13 (4.8)	3 (4.5)	2 (2.6)	18 (4.3)
일차집단 유대감	61 (50.8)	136 (46.1)	163 (46.8)	34 (50.7)	135 (49.5)	30 (45.5)	32 (42.1)	197 (47.5)
자기연장	3 (2.5)	4 (1.4)	7 (2.0)	0 (.0)	3 (1.1)	1 (1.5)	3 (3.9)	7 (1.7)
사회적지위	7 (5.8)	14 (4.7)	17 (4.9)	4 (6.0)	11 (4.0)	7 (10.6)	3 (3.9)	21 (5.1)
창조,성취감	41 (34.2)	124 (42.0)	140 (40.2)	25 (37.3)	106 (38.8)	24 (36.4)	35 (46.1)	165 (39.8)

기타	1 (.8)	6 (2.0)	7 (2.0)	0 (.0)	5 (1.8)	1 (1.5)	1 (1.3)	7 (1.7)
전체	120 (100.0)	295 (100.0)	348 (100.0)	67 (100.0)	273 (100.0)	66 (100.0)	76 (100.0)	415 (100.0)
χ^2 (df)	4.191(5) .522		3.618(5) .606		10.133(10) .429			

<표 IV-6>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자녀필요이유

구분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전체
	고졸& 대학재학	대학교 졸업	대학생	그 외	0	1-100 미만	100 이상	
전통적가치	9 (3.7)	9 (5.3)	8 (3.4)	10 (5.5)	11 (4.6)	5 (7.0)	2 (1.9)	18 (4.3)
일차집단 유대감	112 (45.5)	85 (50.3)	108 (46.4)	89 (48.9)	112 (46.7)	33 (46.5)	52 (50.0)	197 (47.5)
자기연장	5 (2.0)	2 (1.2)	4 (1.7)	3 (1.6)	4 (1.7)	2 (2.8)	1 (1.0)	7 (1.7)
사회적지위	7 (2.8)	14 (8.3)	6 (2.6)	15 (8.2)	7 (2.9)	6 (8.5)	8 (7.7)	21 (5.1)
창조,성취감	108 (43.9)	57 (33.7)	102 (43.8)	63 (34.6)	100 (41.7)	24 (33.8)	41 (39.4)	165 (39.8)
기타	5 (2.0)	2 (1.2)	5 (2.1)	2 (1.1)	6 (2.5)	1 (1.4)	0 (.0)	7 (1.7)
전체	246 (100.0)	169 (100.0)	233 (100.0)	182 (100.0)	240 (100.0)	71 (100.0)	104 (100.0)	415 (100.0)
χ^2 (df)	10.442(5) .064		10.449(5) .063		12.479(10) .254			

<표 IV-5>와 <표 IV-6>과 같이 자녀필요이유에 대하여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학력, 직업, 월평균 소득 등에 대해서 어떠한 항목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분석되지는 않았다. 빈도적으로 분석결과, 자녀필요의 이유에 대해서는 '일차집단의 유대감(197명(47.5%))', '창조·성취감(165명(39.8%))' 등의 선택항목이 전체의 362명(87.3%)의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표 IV-7>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원하는 자녀교육 형태

구분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전체
	남성	여성	미혼	결혼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기타	
기관	4 (3.3)	15 (5.1)	18 (5.2)	1 (1.5)	14 (5.1)	4 (6.1)	1 (1.3)	19 (4.6)
친인척·도우미	6 (5.0)	4 (1.4)	10 (2.9)	0 (.0)	5 (1.8)	2 (3.0)	3 (3.9)	10 (2.4)
부부(부모)	34 (28.3)	85 (28.8)	110 (31.6)	9 (13.4)	87 (31.9)	14 (21.2)	18 (23.7)	119 (28.7)

부부(부모)와 친인척지원	46 (38.3)	66 (22.4)	78 (22.4)	34 (50.7)	73 (26.7)	12 (18.2)	27 (35.5)	112 (27.0)
기관과 친인척지원	3 (2.5)	19 (6.4)	16 (4.6)	6 (9.0)	16 (5.9)	3 (4.5)	3 (3.9)	22 (5.3)
기관과 부모	27 (22.5)	106 (35.9)	116 (33.3)	17 (25.4)	78 (28.6)	31 (47.0)	24 (31.6)	133 (32.0)
전체	120 (100.0)	295 (100.0)	348 (100.0)	67 (100.0)	273 (100.0)	66 (100.0)	76 (100.0)	415 (100.0)
$\chi^2(df)$	20.632(5)*** .001		29.895(5)*** .000		16.478(10) .087			

*** P<.001

<표IV-8>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원하는 자녀교육 형태

구분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전체
	고졸& 대학재학	대학교 졸업	대학생	그 외	0	1-100 미만	100 이상	
기관	11 (4.5)	8 (4.7)	9 (3.9)	10 (5.5)	12 (5.0)	5 (7.0)	2 (1.9)	19 (4.6)
친인척·도우미	5 (2.0)	5 (3.0)	4 (1.7)	6 (3.3)	8 (3.3)	1 (1.4)	1 (1.0)	10 (2.4)
부부(부모)	81 (32.9)	38 (22.5)	77 (33.0)	42 (23.1)	76 (31.7)	24 (33.8)	19 (18.3)	119 (28.7)
부부(부모)와 친인척지원	57 (23.2)	55 (32.5)	55 (23.6)	57 (31.3)	52 (21.7)	17 (23.9)	43 (41.3)	112 (27.0)
기관과 친인척지원	11 (4.5)	11 (6.5)	11 (4.7)	11 (6.0)	10 (4.2)	5 (7.0)	7 (6.7)	22 (5.3)
기관과 부모	81 (32.9)	52 (30.8)	77 (33.0)	56 (30.8)	82 (34.2)	19 (26.8)	32 (30.8)	133 (32.0)
전체	246 (100.0)	169 (100.0)	233 (100.0)	182 (100.0)	240 (100.0)	71 (100.0)	104 (100.0)	415 (100.0)
$\chi^2(df)$	8.372(5) .137		7.951(5) .159		23.118(10)* .010			

* P<.05

<표IV-7>과 같이 성별($\chi^2=20.632$, $p<.001$), 혼인여부($\chi^2=29.895$, $p<.001$)에 따른 원하는 자녀교육형태의 질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표IV-8>과 같이 월평균소득에 따른 원하는 자녀교육형태의 질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chi^2=23.118$, $p<.05$).

‘기관과 부부(부모)’의 자녀교육형태가 총 415명 중 133명(32.0%)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부부(부모)’를 119명(28.7%)이 선택하였으며, 그 뒤를 ‘부부(부모)와 친인척지원’으로 112명(27.0%)이 선택하였다. 이는 전체 ‘기관과 부부(부모)’, ‘부부(부모)’, ‘부부(부모)와 친인척지원’의 부분에서 364명(87.7%)이 선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부부(부모)와 친인척지원'의 응답이 46명(38.35%)과 다음으로 34명(28.3%)으로 '부부(부모)'를 선택하였지만 여성은 '기관과 부부(부모)'를 106명(35.9%)이, '부부(부모)'를 85명(28.8%)이 선택하였다. 혼인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의 집단에서 '기관과 부부(부모)'를 116명(33.3%)이, 그 다음으로 '부부(부모)'를 110명(31.6%)이 선택하였고, 결혼의 집단이 '부부(부모)와 친인척지원'이 34명(50.7%), 그 뒤를 17명(25.4%)이 '기관과 부부(부모)'를 선택하였다. 마지막 월평균 소득 집단으로는 아직 소득이 없는 경우 '기관과 부부(부모)'를 82명(34.2%)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으며, 그 뒤를 76명(31.7%)으로 '부부(부모)'를 선택하였다. 소득이 1-1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는 '부부(부모)'가 24명(33.8%)이, 그 뒤를 19명(26.8%)이 '기관과 부부(부모)'를 선택하였다.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는 43명(41.3%)이 '부부(부모)와 친인척지원'을 선택하고, 그 뒤를 32명(30.8%)이 '기관과 부부(부모)'를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거주지, 학력, 직업에 따른 원하는 자녀교육형태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IV-9>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가장 중요한 교육

구분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전체
	남성	여성	미혼	결혼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기타	
건강 및 안전	47 (39.2)	118 (40.0)	136 (39.1)	29 (43.3)	107 (39.2)	28 (42.4)	30 (39.5)	165 (39.8)
인성	66 (55.0)	163 (55.3)	194 (55.7)	35 (52.2)	152 (55.7)	36 (54.5)	41 (53.9)	229 (55.2)
지식(학벌)	0 (.0)	6 (2.0)	6 (1.7)	0 (.0)	5 (1.8)	0 (.0)	1 (1.3)	6 (1.4)
특기개발	7 (5.8)	7 (2.4)	11 (3.2)	3 (4.5)	9 (3.3)	1 (1.5)	4 (5.3)	14 (3.4)
미모	0 (.0)	1 (.3)	1 (.3)	0 (.0)	0 (.0)	1 (1.5)	0 (.0)	1 (.2)
전체	120 (100.0)	295 (100.0)	348 (100.0)	67 (100.0)	273 (100.0)	66 (100.0)	76 (100.0)	415 (100.0)
$\chi^2(df)$	5.891(4) .207		2.011(4) .734		8.196(8) .415			

<표IV-10>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가장 중요한 교육

구분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전체
	고졸&대학재학	대학교졸업	대학생	그 외	0	1-100 미만	100 이상	
건강 및 안전	90 (36.6)	75 (44.4)	81 (34.8)	84 (46.2)	96 (40.0)	26 (36.6)	43 (41.3)	165 (39.8)
인성	142 (57.7)	87 (51.5)	138 (59.2)	91 (50.0)	135 (56.3)	36 (50.7)	58 (55.8)	229 (55.2)
지식(학벌)	4 (1.6)	2 (1.2)	4 (1.7)	2 (1.1)	3 (1.3)	3 (4.2)	0 (.0)	6 (1.4)
특기개발	9 (3.7)	5 (3.0)	9 (3.9)	5 (2.7)	5 (2.1)	6 (8.5)	3 (2.9)	14 (3.4)
미모	1 (.4)	0 (.0)	1 (.4)	0 (.0)	1 (.4)	0 (.0)	0 (.0)	1 (.2)
전체	246 (100.0)	169 (100.0)	233 (100.0)	182 (100.0)	240 (100.0)	71 (100.0)	104 (100.0)	415 (100.0)
$\chi^2(df)$	3.206(4) .524		6.339(4) .175		13.333(8) .101			

<표IV-9>의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가장 중요한 교육과 <표IV-10>의 학력, 직업, 월평균 소득에 따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빈도적으로 '인성'의 항목에서 선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건강 및 안전'의 항목의 선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IV-11>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가장 우선해야하는 교육

구분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전체
	남성	여성	미혼	결혼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기타	
한글	10 (8.3)	22 (7.5)	30 (8.6)	2 (3.0)	24 (8.8)	4 (6.1)	4 (5.3)	32 (7.7)
예체능	4 (3.3)	5 (1.7)	8 (2.3)	1 (1.5)	6 (2.2)	1 (1.5)	2 (2.6)	9 (2.2)
외국어	2 (1.7)	7 (2.4)	9 (2.6)	0 (.0)	7 (2.6)	0 (.0)	2 (2.6)	9 (2.2)
기본생활 습관	38 (31.7)	148 (50.2)	151 (43.4)	35 (52.2)	128 (46.9)	31 (47.0)	27 (35.5)	186 (44.8)
인성교육	66 (55.0)	111 (37.6)	149 (42.8)	28 (41.8)	107 (39.2)	30 (45.5)	40 (52.6)	177 (42.7)
기타	0 (.0)	2 (.7)	1 (.3)	1 (1.5)	1 (.4)	0 (.0)	1 (1.3)	2 (.5)
전체	120 (100.0)	295 (100.0)	348 (100.0)	67 (100.0)	273 (100.0)	66 (100.0)	76 (100.0)	415 (100.0)
$\chi^2(df)$	14.703(5)* .012		6.904(5) .228		9.091(10) .524			

*P<.05

<표IV-12>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가장 우선해야하는 교육

구분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전체
	고졸&대학재학	대학교졸업	대학생	그 외	0	1-100 미만	100 이상	
한글	20 (8.1)	12 (7.1)	18 (7.7)	14 (7.7)	21 (8.8)	6 (8.5)	5 (4.8)	32 (7.7)
예체능	8 (3.3)	1 (.6)	7 (3.0)	2 (1.1)	6 (2.5)	2 (2.8)	1 (1.0)	9 (2.2)
외국어	7 (2.8)	2 (1.2)	7 (3.0)	2 (1.1)	7 (2.9)	2 (2.8)	0 (.0)	9 (2.2)
기본생활습관	108 (43.9)	78 (46.2)	105 (45.1)	81 (44.5)	109 (45.4)	30 (42.3)	47 (45.2)	186 (44.8)
인성교육	102 (41.5)	75 (44.4)	95 (40.8)	82 (45.1)	96 (40.0)	31 (43.7)	50 (48.1)	177 (42.7)
기타	1 (.4)	1 (.6)	1 (.4)	1 (.5)	1 (.4)	0 (.0)	1 (1.0)	2 (.5)
전체	246 (100.0)	169 (100.0)	233 (100.0)	182 (100.0)	240 (100.0)	71 (100.0)	104 (100.0)	415 (100.0)
$\chi^2(df)$	5.067(5) .408		3.899(5) .564		7.610(10) .667			

<표IV-11>의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가장 우선해야하는 교육에서는 성별에 따른 가장 우선해야 하는 교육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chi^2=14.703$, $p<.05$). <표IV-12>의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가장 우선해야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가장 우선해야 하는 교육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총 415명 중 186명(44.8%)이 '기본생활습관'을, 다음으로 177명(42.7%)이 '인성교육'을 선택하였으며, 집단으로 보았을 때 남성의 집단에서는 66명(55.0%)이 인성교육을 선택한 가운데 다음으로 38명(31.7%)이 '기본생활습관'을, 여성의 집단에서는 148명(50.2%)이 '기본생활습관'을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111명(37.6%)으로 '인성교육'을 선택하였다.

<표IV-13>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기본생활습관과 인성교육의 방법

구분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전체
	남성	여성	미혼	결혼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기타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106 (88.3)	258 (87.5)	305 (87.6)	59 (88.1)	245 (89.7)	52 (78.8)	67 (88.2)	364 (87.7)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12 (10.0)	35 (11.9)	39 (11.2)	8 (11.9)	25 (9.2)	13 (19.7)	9 (11.8)	47 (11.3)
학원에서 의도적으로	1 (.8)	1 (.3)	2 (.6)	0 (.0)	1 (.4)	1 (1.5)	0 (.0)	2 (.5)

기타	1 (.8)	1 (.3)	2 (.6)	0 (.0)	2 (.7)	0 (.0)	0 (.0)	2 (.5)
전체	120 (100.0)	295 (100.0)	348 (100.0)	67 (100.0)	273 (100.0)	66 (100.0)	76 (100.0)	415 (100.0)
$\chi^2(df)$	1.134(3) .769		.798(3) .850		8.909(6) .179			

<표IV-14>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기본생활습관과 인성교육의 방법

구분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전체
	고졸& 대학재학	대학교 졸업	대학생	그 외	0	1-100 미만	100 이상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216 (87.8)	148 (87.6)	207 (88.8)	157 (86.3)	209 (87.1)	61 (85.9)	94 (90.4)	364 (87.7)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	27 (11.0)	20 (11.8)	24 (10.3)	23 (12.6)	29 (12.1)	9 (12.7)	9 (8.7)	47 (11.3)
학원에서 의도적으로	2 (.8)	0 (.0)	1 (.4)	1 (.5)	1 (.4)	0 (.0)	1 (1.0)	2 (.5)
기타	1 (.4)	1 (.6)	1 (.4)	1 (.5)	1 (.4)	1 (1.4)	0 (.0)	2 (.5)
전체	246 (100.0)	169 (100.0)	233 (100.0)	182 (100.0)	240 (100.0)	71 (100.0)	104 (100.0)	415 (100.0)
$\chi^2(df)$	1.511(3) .680		.631(3) .889		3.660(6) .723			

<표III-13>의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기본생활습관과 인성교육의 방법과 <표III-14>의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기본생활습관과 인성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빈도분석으로 보았을 때 '가정에서 자연스럽게'의 항목에서 총 415명 중 전체 364(87.7%)명이 선택하여 빈도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IV-15>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한 달 사교육비

구분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전체
	남성	여성	미혼	결혼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기타	
50만원 미만	64 (53.3)	133 (45.1)	157 (45.1)	40 (59.7)	126 (46.2)	31 (47.0)	40 (52.6)	197 (47.5)
50~ 100만원 미만	45 (37.5)	107 (36.3)	127 (36.5)	25 (37.3)	103 (37.7)	22 (33.3)	27 (35.5)	152 (36.6)
100~ 150만원 미만	9 (7.5)	44 (14.9)	51 (14.7)	2 (3.0)	36 (13.2)	11 (16.7)	6 (7.9)	53 (12.8)

150~ 200만원 미만	0 (.0)	7 (2.4)	7 (2.0)	0 (.0)	3 (1.1)	1 (1.5)	3 (3.9)	7 (1.7)
200만원 이상	2 (1.7)	4 (1.4)	6 (1.7)	0 (.0)	5 (1.8)	1 (1.5)	0 (.0)	6 (1.4)
전체	120 (100.0)	295 (100.0)	348 (100.0)	67 (100.0)	273 (100.0)	66 (100.0)	76 (100.0)	415 (100.0)
χ^2 (df)	7.835(4) .098		11.023(4)* .026		7.332(8) .501			

* P<.05

<표IV-16>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한 달 사교육비

구분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전체
	고졸& 대학재학	대학교 졸업	대학생	그 외	0	1-100 미만	100 이상	
50만원 미만	100 (40.7)	97 (57.4)	92 (39.5)	105 (57.7)	102 (42.5)	31 (43.7)	64 (61.5)	197 (47.5)
50~ 100만원 미만	94 (38.2)	58 (34.3)	91 (39.1)	61 (33.5)	94 (39.2)	27 (38.0)	31 (29.8)	152 (36.6)
100~ 150만원 미만	41 (16.7)	12 (7.1)	40 (17.2)	13 (7.1)	37 (15.4)	9 (12.7)	7 (6.7)	53 (12.8)
150~ 200만원 미만	6 (2.4)	1 (.6)	6 (2.6)	1 (.5)	4 (1.7)	3 (4.2)	0 (.0)	7 (1.7)
200만원 이상	5 (2.0)	1 (.6)	4 (1.7)	2 (1.1)	3 (1.3)	1 (1.4)	2 (1.9)	6 (1.4)
전체	246 (100.0)	169 (100.0)	233 (100.0)	182 (100.0)	240 (100.0)	71 (100.0)	104 (100.0)	415 (100.0)
χ^2 (df)	16.976(4)** .002		18.788(4)*** .001		16.566(8)* .035			

* P<.05, ** P<.01, *** P<.001

<표III-15>와 같이 혼인여부에 따른 한 달 사교육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11.023$, $p<.05$). 또한 <표III-16>과 같이 학력($\chi^2=16.976$, $p<.01$), 직업($\chi^2=18.788$, $p<.001$), 월평균소득($\chi^2=16.566$, $p<.05$)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알맞다고 생각하는 한 달 사교육비에 관한 질문에 총 415명 중 197명(47.5%)이 '50만원이하'를 선택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152명(36.6%)으로 '50-100만원'을 선택하였다. 이는 혼인여부,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의 집단으로 보았을 때도 '50만원이하'와 '50-100만원'을 선택함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IV-17>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아이의 장래희망

구분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전체
	남성	여성	미혼	결혼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기타	
아이가 바라는 것	96 (80.0)	229 (77.6)	272 (78.2)	53 (79.1)	216 (79.1)	49 (74.2)	60 (78.9)	325 (78.3)
공무원	5 (4.2)	21 (7.1)	23 (6.6)	3 (4.5)	21 (7.7)	5 (7.6)	0 (.0)	26 (6.3)
의사, 검사	8 (6.7)	16 (5.4)	17 (4.9)	7 (10.4)	17 (6.2)	3 (4.5)	4 (5.3)	24 (5.8)
선생님	1 (.8)	5 (1.7)	6 (1.7)	0 (.0)	3 (1.1)	1 (1.5)	2 (2.6)	6 (1.4)
사업가(CEO)	2 (1.7)	7 (2.4)	7 (2.0)	2 (3.0)	5 (1.8)	2 (3.0)	2 (2.6)	9 (2.2)
예술분야	7 (5.8)	14 (4.7)	20 (5.7)	1 (1.5)	10 (3.7)	6 (9.1)	5 (6.6)	21 (5.1)
기타	1 (.8)	3 (1.0)	3 (.9)	1 (1.5)	1 (.4)	0 (.0)	3 (3.9)	4 (1.0)
전체	120 (100.0)	295 (100.0)	348 (100.0)	67 (100.0)	273 (100.0)	66 (100.0)	76 (100.0)	415 (100.0)
$\chi^2(df)$	2.339(6) .886		7.062(6) .315		19.897(12) .069			

<표IV-18>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아이의 장래희망

구분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전체
	고졸& 대학재학	대학교 졸업	대학생	그 외	0	1-100 미만	100 이상	
아이가 바라는 것	192 (78.0)	133 (78.7)	184 (79.0)	141 (77.5)	182 (75.8)	56 (78.9)	87 (83.7)	325 (78.3)
공무원	15 (6.1)	11 (6.5)	14 (6.0)	12 (6.6)	20 (8.3)	2 (2.8)	4 (3.8)	26 (6.3)
의사, 검사	12 (4.9)	12 (7.1)	10 (4.3)	14 (7.7)	15 (6.3)	3 (4.2)	6 (5.8)	24 (5.8)
선생님	5 (2.0)	1 (.6)	5 (2.1)	1 (.5)	4 (1.7)	1 (1.4)	1 (1.0)	6 (1.4)
사업가(CEO)	5 (2.0)	4 (2.4)	5 (2.1)	4 (2.2)	4(1.7)	2 (2.8)	3 (2.9)	9 (2.2)
예술분야	15 (6.1)	6 (3.6)	13 (5.6)	8 (4.4)	14 (5.8)	6 (8.5)	1 (1.0)	21 (5.1)
기타	2 (.8)	2 (1.2)	2 (.9)	2 (1.1)	1 (.4)	1 (1.4)	2 (1.9)	4 (1.0)
전체	246 (100.0)	169 (100.0)	233 (100.0)	182 (100.0)	240 (100.0)	71 (100.0)	104 (100.0)	415 (100.0)
$\chi^2(df)$	3.805(6) .703		4.275(6) .640		13.062(12) .365			

<표III-17>과 <표III-18>에서 살펴보면, 아이의 장래희망에 관한 질문에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빈도적 결과로 아이가 바라는 장래희망을 존중해주고자 하는 예비부모들의

선택이 325명으로 78.3%로 나타났다.

<표IV-19>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아이에게 가장 많은 영향의 원인

구분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전체
	남성	여성	미혼	결혼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기타	
친구관계	17 (14.2)	29 (9.8)	42 (12.1)	4 (6.0)	32 (11.7)	6 (9.1)	8 (10.5)	46 (11.1)
형제관계	4 (3.3)	4 (1.4)	8 (2.3)	0 (.0)	6 (2.2)	1 (1.5)	1 (1.3)	8 (1.9)
보육· 교육기관	5 (4.2)	14 (4.7)	16 (4.6)	3 (4.5)	9 (3.3)	5 (7.6)	5 (6.6)	19 (4.6)
부모의 교육·양육법	91 (75.8)	240 (81.4)	272 (78.2)	59 (88.1)	219 (80.2)	50 (75.8)	62 (81.6)	331 (79.8)
책, TV	3 (2.5)	7 (2.4)	9 (2.6)	1 (1.5)	7 (2.6)	3 (4.5)	0 (.0)	10 (2.4)
기타	0 (.0)	1 (.3)	1 (.3)	0 (.0)	0 (.0)	1 (1.5)	0 (.0)	1 (.2)
전체	120 (100.0)	295 (100.0)	348 (100.0)	67 (100.0)	273 (100.0)	66 (100.0)	76 (100.0)	415 (100.0)
χ^2 (df)	3.978(5) .553		4.589(5) .468		12.173(10) .274			

<표IV-20>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아이에게 가장 많은 영향의 원인

구분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전체
	고졸& 대학재학	대학교 졸업	대학생	그 외	0	1-100 미만	100 이상	
친구관계	30 (12.2)	16 (9.5)	30 (12.9)	16 (8.8)	28 (11.7)	12 (16.9)	6 (5.8)	46 (11.1)
형제관계	5 (2.0)	3 (1.8)	5 (2.1)	3 (1.6)	5 (2.1)	3 (4.2)	0 (.0)	8 (1.9)
보육· 교육기관	11 (4.5)	8 (4.7)	9 (3.9)	10 (5.5)	12 (5.0)	1 (1.4)	6 (5.8)	19 (4.6)
부모의 교육·양육법	190 (77.2)	141 (83.4)	180 (77.3)	151 (83.0)	187 (77.9)	52 (73.2)	92 (88.5)	331 (79.8)
책, TV	9 (3.7)	1 (.6)	8 (3.4)	2 (1.1)	7 (2.9)	3 (4.2)	0 (.0)	10 (2.4)
기타	1 (.4)	0 (.0)	1 (.4)	0 (.0)	1 (.4)	0 (.0)	0 (.0)	1 (.2)
전체	246 (100.0)	169 (100.0)	233 (100.0)	182 (100.0)	240 (100.0)	71 (100.0)	104 (100.0)	415 (100.0)
χ^2 (df)	5.801(5) .326		5.774(5) .329		16.775(10) .079			

<표III-19>와 <표III-20>에서 살펴보면,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아이가 자라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는 질문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부모의 교육·양육법’에

대한 응답이 전체 415명 중 331명(79.8%)이 빈도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IV-21> 성별, 혼인여부에 따른 부모기의 통념

부모기 통념	성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F	유의 확률	혼인 여부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F	유의 확률
자녀 키우기 재미있음	남성	120	3.19	.598	.055	.088	.766	미혼	348	3.15	.585	.031	4.324*	.038
	여성	295	3.17	.578	.034			결혼	67	3.31	.556	.068		
	합계	415	3.18	.583	.029			합계	415	3.18	.583	.029		
유아는 늘 사랑스럽고 귀여움	남성	120	3.00	.733	.067	.028	.866	미혼	348	2.99	.734	.039	.087	.768
	여성	295	2.99	.747	.043			결혼	67	3.01	.788	.096		
	합계	415	2.99	.742	.036			합계	415	2.99	.742	.036		
좋은 부모의 아이들은 훌륭히 성장	남성	120	3.44	.632	.058	.000	.988	미혼	348	3.44	.616	.033	.010	.921
	여성	295	3.44	.608	.035			결혼	67	3.45	.610	.075		
	합계	415	3.44	.614	.030			합계	415	3.44	.614	.030		
자녀가 부모의 결혼생활 향상	남성	120	3.25	.554	.051	.024	.877	미혼	348	3.23	.561	.030	1.864	.173
	여성	295	3.24	.559	.033			결혼	67	3.33	.533	.065		
	합계	415	3.24	.557	.027			합계	415	3.24	.557	.027		
자녀를 바르게 기르면 바르게 성장	남성	120	3.30	.630	.057	2.707	.101	미혼	348	3.37	.592	.032	.033	.857
	여성	295	3.41	.587	.034			결혼	67	3.39	.650	.079		
	합계	415	3.38	.601	.029			합계	415	3.38	.601	.029		
옛날 부모보다 부모역할을 못함	남성	120	2.51	.799	.073	.871	.351	미혼	348	2.57	.735	.039	.426	.515
	여성	295	2.58	.714	.042			결혼	67	2.51	.766	.094		
	합계	415	2.56	.739	.036			합계	415	2.56	.739	.036		
자녀없는 부부는 불행	남성	120	2.80	.774	.071	2.879	.090	미혼	348	2.93	.737	.039	4.772*	.029
	여성	295	2.94	.723	.042			결혼	67	2.72	.735	.090		
	합계	415	2.90	.740	.036			합계	415	2.90	.740	.036		
외자식은 외롭고 버릇이 없음	남성	120	2.83	.781	.071	1.104	.294	미혼	348	2.80	.737	.040	3.834	.051
	여성	295	2.75	.722	.042			결혼	67	2.61	.738	.090		
	합계	415	2.77	.740	.036			합계	415	2.77	.740	.036		
문제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음	남성	120	2.76	.722	.066	8.517**	.004	미혼	348	2.60	.780	.042	.883	.348
	여성	295	2.52	.773	.045			결혼	67	2.51	.683	.083		
	합계	415	2.59	.765	.038			합계	415	2.59	.765	.038		
모든 부모는 성인	남성	120	2.28	.809	.074	.008	.929	미혼	348	2.29	.735	.039	1.187	.277
	여성	295	2.27	.719	.042			결혼	67	2.18	.796	.097		
	합계	415	2.27	.745	.037			합계	415	2.27	.745	.037		
자녀들은 부모의 편익에 감사해야함	남성	120	3.03	.667	.061	.059	.808	미혼	348	3.05	.586	.031	.588	.443
	여성	295	3.04	.564	.033			결혼	67	2.99	.639	.078		
	합계	415	3.04	.595	.029			합계	415	3.04	.595	.029		
내 자녀는 나보다 행복하게 살 것임	남성	120	3.05	.633	.058	3.110	.079	미혼	348	3.12	.610	.033	.547	.460
	여성	295	3.16	.572	.033			결혼	67	3.18	.490	.060		
	합계	415	3.13	.592	.029			합계	415	3.13	.592	.029		
부모는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 쏟으면 됨	남성	120	2.70	.729	.067	.148	.701	미혼	348	2.70	.701	.038	1.224	.269
	여성	295	2.73	.676	.039			결혼	67	2.81	.633	.077		
	합계	415	2.72	.691	.034			합계	415	2.72	.691	.034		
편부모가정은 문제가 있음	남성	120	2.96	.715	.065	.127	.722	미혼	348	2.95	.758	.041	1.024	.312
	여성	295	2.93	.786	.046			결혼	67	2.85	.803	.098		

	합계	415	2.94	.765	.038			합계	415	2.94	.765	.038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 임무는 끝	남성	120	3.02	.686	.063	2.049	.153	미혼	348	3.07	.673	.036	1.491	.223
	여성	295	3.12	.646	.038			결혼	67	3.18	.575	.070		
	합계	415	3.09	.659	.032			합계	415	3.09	.659	.032		
자녀가 성장하여 집을 떠나면 부모는 허탈	남성	120	2.26	.761	.070	1.564	.212	미혼	348	2.31	.729	.039	1.250	.264
	여성	295	2.36	.704	.041			결혼	67	2.42	.678	.083		
	합계	415	2.33	.721	.035			합계	415	2.33	.721	.035		

* P<.05, ** P<.01

<표IV-21>에서는 성별과 혼인여부에 따른 부모기의 통념에 대한 분석 결과, ‘문제아는 없고 문제부모만 있다’는 통념에 대해 ‘남성’의 집단이 ‘여성’의 집단에 비해 문제아 발생에 부모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유의확률 0.004(p<.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자녀키우기가 재미있을 것이다’와 ‘자녀 없는 부부는 불행할 것이다’라는 통념에 대해 ‘결혼’의 집단이 ‘미혼’의 집단에 비해 자녀 키우기에 대해 더 재미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자녀가 없다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각각 유의확률 0.038(p<.05), 0.029(p<.0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IV-22> 학력수준, 직업에 따른 부모기의 통념

부모기통념	학력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F	유의 확률	직업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F	유의 확률
자녀 키우기는 재미있음	고졸대재	246	3.16	.602	.038	.694	.405	대학생	233	3.14	.596	.039	2.108	.147
	대졸	169	3.21	.555	.043			그외	182	3.23	.565	.042		
	합계	415	3.18	.583	.029			합계	415	3.18	.583	.029		
유아는 늘 사랑스럽고 귀여움	고졸대재	246	2.99	.748	.048	.007	.933	대학생	233	2.98	.743	.049	.055	.815
	대졸	169	2.99	.736	.057			그외	182	3.00	.743	.055		
	합계	415	2.99	.742	.036			합계	415	2.99	.742	.036		
좋은 부모의 아이들은 훌륭히 성장	고졸대재	246	3.43	.627	.040	.162	.688	대학생	233	3.44	.621	.041	.014	.905
	대졸	169	3.46	.597	.046			그외	182	3.45	.608	.045		
	합계	415	3.44	.614	.030			합계	415	3.44	.614	.030		
자녀가 부모의 결혼생활을 향상	고졸대재	246	3.27	.587	.037	1.210	.272	대학생	233	3.24	.584	.038	.003	.958
	대졸	169	3.21	.510	.039			그외	182	3.24	.522	.039		
	합계	415	3.24	.557	.027			합계	415	3.24	.557	.027		
자녀를 바르게 기르면 바르게 성장	고졸대재	246	3.38	.593	.038	.064	.800	대학생	233	3.38	.597	.039	.005	.946
	대졸	169	3.37	.614	.047			그외	182	3.37	.607	.045		
	합계	415	3.38	.601	.029			합계	415	3.38	.601	.029		
옛날 부모보다 부모역할을 못함	고졸대재	246	2.54	.737	.047	.478	.490	대학생	233	2.58	.715	.047	.481	.489
	대졸	169	2.59	.743	.057			그외	182	2.53	.770	.057		
	합계	415	2.56	.739	.036			합계	415	2.56	.739	.036		
자녀없는 부부는 불행	고졸대재	246	2.94	.759	.048	2.416	.121	대학생	233	2.97	.751	.049	5.310*	.022

	대졸	169	2.83	.707	.054			그외	182	2.80	.716	.053		
	합계	415	2.90	.740	.036			합계	415	2.90	.740	.036		
외자식은 외롭고 버릇이 없음	고졸대재	246	2.83	.767	.049	3.978*	.047	대학생	233	2.85	.757	.050	6.382*	.012
	대졸	169	2.69	.692	.053			그외	182	2.67	.706	.052		
	합계	415	2.77	.740	.036			합계	415	2.77	.740	.036		
문제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음	고졸대재	246	2.57	.778	.050	.225	.636	대학생	233	2.56	.792	.052	.816	.367
	대졸	169	2.61	.749	.058			그외	182	2.63	.731	.054		
	합계	415	2.59	.765	.038			합계	415	2.59	.765	.038		
모든 부모는 성인	고졸대재	246	2.23	.717	.046	1.588	.208	대학생	233	2.21	.699	.046	2.940	.087
	대졸	169	2.33	.783	.060			그외	182	2.34	.797	.059		
	합계	415	2.27	.745	.037			합계	415	2.27	.745	.037		
자녀들은 부모의 편의에 감사해야함	고졸대재	246	3.07	.578	.037	1.859	.173	대학생	233	3.06	.569	.037	.861	.354
	대졸	169	2.99	.617	.047			그외	182	3.01	.626	.046		
	합계	415	3.04	.595	.029			합계	415	3.04	.595	.029		
내 자녀는 나보다 행복하게 살 것임	고졸대재	246	3.10	.638	.041	1.832	.177	대학생	233	3.10	.632	.041	1.498	.222
	대졸	169	3.18	.516	.040			그외	182	3.17	.535	.040		
	합계	415	3.13	.592	.029			합계	415	3.13	.592	.029		
부모는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 쏟으면 됨	고졸대재	246	2.74	.692	.044	.474	.492	대학생	233	2.78	.684	.045	3.556	.060
	대졸	169	2.69	.690	.053			그외	182	2.65	.695	.052		
	합계	415	2.72	.691	.034			합계	415	2.72	.691	.034		
편부모가정은 문제가 있음	고졸대재	246	2.96	.794	.051	.331	.565	대학생	233	3.00	.763	.050	3.106	.079
	대졸	169	2.91	.722	.056			그외	182	2.86	.764	.057		
	합계	415	2.94	.765	.038			합계	415	2.94	.765	.038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로 임무는 끝	고졸대재	246	3.10	.659	.042	.216	.642	대학생	233	3.12	.636	.042	.874	.350
	대졸	169	3.07	.660	.051			그외	182	3.05	.687	.051		
	합계	415	3.09	.659	.032			합계	415	3.09	.659	.032		
자녀가 성장하여 집을 떠나면 부모는 허탈	고졸대재	246	2.35	.773	.049	.781	.377	대학생	233	2.34	.755	.049	.131	.717
	대졸	169	2.29	.640	.049			그외	182	2.31	.678	.050		
	합계	415	2.33	.721	.035			합계	415	2.33	.721	.035		

* P<.05

<표IV-22>에서 학력수준과 직업에 따른 부모기의 통념에 대한 분석 결과, ‘외자식은 외롭고 버릇이 없다’는 통념에 대해 ‘고졸&대학재학’의 집단이 ‘대학졸업’의 집단에 비해 외자식이 버릇이 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유의확률 0.047(p<.0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자녀없는 부부는 불행할 것이다’와 ‘외자식은 외롭고 버릇이 없다’는 통념에 대해 ‘대학생’ 집단이 ‘그 외 직업’ 집단에 비해 자녀가 없으면 불행하고, 외자식이 버릇이 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각각 유의확률 0.022(p<.05), 0.012(p<.0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IV-23> 거주지, 월평균소득에 따른 부모기의 통념

부모기 통념	거주지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F	유의 확률	월평균 소득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F	유의 확률
자녀 키우기는 재미있음	제주시동	273	3.16	.572	.035	.344	.709	0	240	3.17	.607	.039	.245	.783
	서귀포동	66	3.21	.595	.073			1-100만	71	3.15	.525	.062		
	기타	76	3.21	.618	.071			100이상	104	3.21	.569	.056		
	합계	415	3.18	.583	.029			합계	415	3.18	.583	.029		
유아는 늘 사랑스럽고 귀여움	제주시동	273	2.99	.710	.043	.007	.993	0	240	3.02	.768	.050	1.168	.312
	서귀포동	66	3.00	.744	.092			1-100만	71	3.03	.654	.078		
	기타	76	2.99	.856	.098			100이상	104	2.89	.736	.072		
	합계	415	2.99	.742	.036			합계	415	2.99	.742	.036		
좋은 부모의 아이들은 훌륭히 성장	제주시동	273	3.47	.600	.036	.829	.437	0	240	3.43	.617	.040	.175	.839
	서귀포동	66	3.39	.605	.074			1-100만	71	3.42	.625	.074		
	기타	76	3.38	.673	.077			100이상	104	3.47	.607	.059		
	합계	415	3.44	.614	.030			합계	415	3.44	.614	.030		
자녀가 부모의 결혼생활을 향상	제주시동	273	3.25	.546	.033	.549	.578	0	240	3.21	.572	.037	1.404	.247
	서귀포동	66	3.18	.579	.071			1-100만	71	3.34	.559	.066		
	기타	76	3.28	.580	.066			100이상	104	3.25	.517	.051		
	합계	415	3.24	.557	.027			합계	415	3.24	.557	.027		
자녀를 바르게 기르면 바르게 성장	제주시동	273	3.39	.590	.036	.365	.694	0	240	3.38	.587	.038	.020	.980
	서귀포동	66	3.32	.612	.075			1-100만	71	3.37	.615	.073		
	기타	76	3.38	.632	.072			100이상	104	3.38	.628	.062		
	합계	415	3.38	.601	.029			합계	415	3.38	.601	.029		
옛날 부모보다 부모역할을 못함	제주시동	273	2.56	.750	.045	1.984	.139	0	240	2.55	.730	.047	.260	.772
	서귀포동	66	2.42	.634	.078			1-100만	71	2.54	.693	.082		
	기타	76	2.67	.773	.089			100이상	104	2.61	.793	.078		
	합계	415	2.56	.739	.036			합계	415	2.56	.739	.036		
자녀없는 부부는 불행	제주시동	273	2.89	.721	.044	.076	.927	0	240	2.92	.742	.048	.375	.687
	서귀포동	66	2.91	.739	.091			1-100만	71	2.89	.785	.093		
	기타	76	2.92	.813	.093			100이상	104	2.85	.707	.069		
	합계	415	2.90	.740	.036			합계	415	2.90	.740	.036		
외자식은 외롭고 버릇이 없음	제주시동	273	2.74	.729	.044	.959	.384	0	240	2.78	.736	.047	2.035	.132
	서귀포동	66	2.80	.749	.092			1-100만	71	2.90	.777	.092		
	기타	76	2.87	.772	.089			100이상	104	2.67	.717	.070		
	합계	415	2.77	.740	.036			합계	415	2.77	.740	.036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음	제주시동	273	2.50	.738	.045	5.227**	.006	0	240	2.53	.770	.050	2.706	.068
	서귀포동	66	2.73	.814	.100			1-100만	71	2.76	.801	.095		
	기타	76	2.78	.776	.089			100이상	104	2.62	.715	.070		
	합계	415	2.59	.765	.038			합계	415	2.59	.765	.038		
모든 부모는 성인	제주시동	273	2.26	.748	.045	.286	.751	0	240	2.35	.750	.048	3.055*	.048
	서귀포동	66	2.33	.687	.085			1-100만	71	2.14	.723	.086		
	기타	76	2.26	.789	.091			100이상	104	2.18	.734	.072		
	합계	415	2.27	.745	.037			합계	415	2.27	.745	.037		
자녀들은 부모의 편의에 감사해야함	제주시동	273	3.00	.606	.037	1.515	.221	0	240	3.05	.569	.037	2.762	.064
	서귀포동	66	3.09	.601	.074			1-100만	71	3.14	.593	.070		
	기타	76	3.12	.541	.062			100이상	104	2.93	.643	.063		
	합계	415	3.04	.595	.029			합계	415	3.04	.595	.029		
내 자녀는 나보다	제주시동	273	3.10	.595	.036	2.326	.099	0	240	3.19	.602	.039	2.712	.068
	서귀포동	66	3.27	.513	.063			1-100만	71	3.04	.596	.071		

행복하게 살 것임	기타	76	3.12	.632	.072			100이상	104	3.06	.554	.054		
	합계	415	3.13	.592	.029			합계	415	3.13	.592	.029		
부모는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 쏟으면 됨	제주시동	273	2.74	.689	.042	.278	.757	0	240	2.68	.734	.047	1.527	.218
	서귀포동	66	2.67	.709	.087			1-100만	71	2.83	.585	.069		
	기타	76	2.71	.689	.079			100이상	104	2.75	.650	.064		
	합계	415	2.72	.691	.034			합계	415	2.72	.691	.034		
편부모가정은 문제가 있음	제주시동	273	2.96	.783	.047	.952	.387	0	240	2.93	.765	.049	.174	.840
	서귀포동	66	2.82	.742	.091			1-100만	71	2.99	.765	.091		
	기타	76	2.96	.720	.083			100이상	104	2.92	.772	.076		
	합계	415	2.94	.765	.038			합계	415	2.94	.765	.038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로 임무는 끝	제주시동	273	3.16	.652	.039	5.553**	.004	0	240	3.05	.701	.045	1.131	.324
	서귀포동	66	2.91	.601	.074			1-100만	71	3.11	.667	.079		
	기타	76	2.97	.692	.079			100이상	104	3.16	.542	.053		
	합계	415	3.09	.659	.032			합계	415	3.09	.659	.032		
자녀가 성장하여 집을 떠나면 부모는 허탈	제주시동	273	2.33	.724	.044	.024	.976	0	240	2.25	.713	.046	2.991	.051
	서귀포동	66	2.32	.683	.084			1-100만	71	2.42	.710	.084		
	기타	76	2.32	.752	.086			100이상	104	2.43	.734	.072		
	합계	415	2.33	.721	.035			합계	415	2.33	.721	.035		

P<.05, ** P<.01

<표Ⅳ-23>에서 거주지와 월평균소득에 따른 부모기의 통념에 대한 분석 결과, '문제아는 없고 문제부모만 있다'는 통념에 대해 '서귀포시 동지역'과 '그 외 지역'의 집단이 '제주시 동지역'의 집단에 비해 문제아 발생에 부모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의 임무는 끝이다'라는 통념에 대해서는 '제주시 동지역'의 집단이 '서귀포시 동지역'과 '그 외 지역'의 집단에 비해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의 역할은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각각 유의확률 0.006(p<.01), 0.004(p<.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모든 부모는 성인이다'라는 통념에 대해 '월평균소득 0' 집단이 '월평균 소득 0~100'과 '월평균소득 100이상' 집단에 비해 '부모가 되면 성인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각각 유의확률 0.048(p<.0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 예비부모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

예비부모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자녀교육책임에 대한 생각, 자녀교육 시 가장 힘들 것에 대해서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으로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IV-24>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인식

구분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전체
	남성	여성	미혼	결혼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기타	
경제적 지원	15 (6.4)	30 (5.5)	37 (5.7)	8 (6.0)	33 (6.5)	3 (2.4)	9 (6.2)	135 (5.7)
사회가치관전달	39 (16.7)	58 (10.6)	77 (11.9)	20 (14.9)	66 (12.9)	15 (11.9)	16 (11.0)	291 (12.4)
훈육	37 (15.8)	82 (14.9)	106 (16.3)	13 (9.7)	82 (16.0)	15 (11.9)	22 (15.1)	357 (15.2)
의논상대자 및 친구	60 (25.6)	157 (28.6)	189 (29.1)	28 (20.9)	137 (26.8)	40 (31.7)	40 (27.4)	651 (27.7)
건강 및 영양관리	66 (28.2)	161 (29.3)	181 (27.9)	46 (34.3)	144 (28.2)	43 (34.1)	40 (27.4)	681 (29.0)
자녀보호	17 (7.3)	59 (10.7)	57 (8.8)	19 (14.2)	47 (9.2)	10 (7.9)	19 (13.0)	228 (9.7)
기타	0 (.0)	2 (.4)	2 (.3)	0 (.0)	2 (.4)	0 (.0)	0 (.0)	6 (.3)
전체	234 (100.0)	549 (100.0)	649 (100.0)	134 (100.0)	511 (100.0)	126 (100.0)	146 (100.0)	2349 (100.0)
χ^2 (df)	120.46(6) ^{***}		334.10(6) ^{***}		334.10(12) ^{***}			

^{***} P<.001

<표IV-24>에서 성별($\chi^2=120.46$, $p<.001$), 혼인여부($\chi^2=334.10$, $p<.001$), 거주지($\chi^2=334.10$, $p<.001$)에 따른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남성'과 '여성' 집단, '미혼'과 '결혼' 집단,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그 외 지역' 집단 모두 '의논상대자 및 친구의 역할', '건강 및 영양관리의 역할'의 응답이 많았다.

전체 29.0%를 '건강 및 영양관리'를 선택하였고, 27.7%를 '의논상대자 및 친구'라고

선택하였다. 집단별로 살펴볼 때, 혼인여부 미혼의 집단에서 29.1%를 ‘의논상대자 및 친구’를 선택하고 27.9%를 ‘건강 및 영양관리’를 선택하였고, 거주지에서 기타집단에서 동등하게 선택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 ‘건강 및 영양관리’와 ‘의논상대자 및 친구’의 순으로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표IV-25>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인식

구분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전체
	고졸&대학재학	대학교졸업	대학생	그 외	0	1-100 미만	100 이상	
경제적지원	26 (5.6)	19 (6.0)	27 (6.1)	18 (5.3)	19 (4.3)	11 (8.1)	15 (7.4)	135 (5.7)
사회가치관전달	58 (12.5)	39 (12.3)	55 (12.4)	42 (12.4)	53 (12.0)	13 (9.6)	31 (15.2)	291 (12.4)
훈육	69 (14.8)	50 (15.7)	68 (15.3)	51 (15.0)	68 (15.3)	21 (15.4)	30 (14.7)	357 (15.2)
의논상대자 및 친구	130 (28.0)	87 (27.4)	121 (27.3)	96 (28.2)	130 (29.3)	39 (28.7)	48 (23.5)	651 (27.7)
건강 및 영양관리	134 (28.8)	93 (29.2)	128 (28.9)	99 (29.1)	125 (28.2)	42 (30.9)	60 (29.4)	681 (29.0)
자녀 보호	46 (9.9)	30 (9.4)	42 (9.5)	34 (10.0)	46 (10.4)	10 (7.4)	20 (9.8)	228 (9.7)
기타	2 (.4)	0 (.0)	2 (.5)	0 (.0)	2 (.5)	0 (.0)	0 (.0)	6 (.3)
전체	465 (100.0)	318 (100.0)	443 (100.0)	340 (100.0)	443 (100.0)	136 (100.0)	204 (100.0)	2349 (100.0)
χ^2	25.45(6) ^{***}		12.98(6) [*]		195.10(12) ^{***}			

^{*}P<.05, ^{**}P<.01, ^{***}P<.001

<표IV-25>에서 학력($\chi^2=25.45$, $p<.001$), 직업($\chi^2=12.98$, $p<.05$), 월평균소득($\chi^2=195.10$, $p<.001$)에 따른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의논상대자 및 친구(29.3%)’의 역할 ‘건강 및 영양관리의 역할(28.2%)’을 선택하였고, ‘고졸&대재’와 ‘대졸’ 집단, ‘대학생’과 ‘그외 직업’ 집단, ‘소득 0~100만원’, ‘소득 100만원 이상’ 집단 모두 ‘의논상대자 및 친구의 역할’, ‘건강 및 영양관리의 역할’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표IV-26>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인식

구분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전체
	남	여	미혼	결혼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기타	
경제적지원	71 (30.3)	169 (30.7)	205 (31.5)	35 (26.1)	151 (29.4)	43 (34.1)	46 (31.5)	720 (30.6)
사회가치관전달	39 (16.7)	83 (15.1)	97 (14.9)	25 (18.7)	79 (15.4)	16 (12.7)	27 (18.5)	366 (15.5)
훈육	47 (20.1)	98 (17.8)	116 (17.8)	29 (21.6)	88 (17.2)	28 (22.2)	29 (19.9)	435 (18.5)
의논상대자 및친구	41 (17.5)	68 (12.3)	90 (13.8)	19 (14.2)	81 (15.8)	8 (6.3)	20 (13.7)	327 (13.9)
건강 및 영양관리	6 (2.6)	19 (3.4)	20 (3.1)	5 (3.7)	13 (2.5)	7 (5.6)	5 (3.4)	75 (3.2)
자녀보호	30 (12.8)	110 (20.0)	119 (18.3)	21 (15.7)	99 (19.3)	24 (19.0)	17 (11.6)	420 (17.8)
기타	0 (.0)	4 (.7)	4 (.6)	0 (.0)	2 (.4)	0 (.0)	2 (1.4)	12 (.5)
전체	234 (100.0)	551 (100.0)	651 (100.0)	134 (100.0)	513 (100.0)	126 (100.0)	146 (100.0)	2355 (100.0)
χ^2	110.13(6) ^{***}		304.66(6) ^{***}		346.30(12) ^{***}			

*** P<.001

<표IV-26>에서 성별($\chi^2=110.13$, $p<.001$), 혼인여부($\chi^2=304.66$, $p<.001$), 거주지($\chi^2=346.30$, $p<.001$)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경제적지원(30.6%)', '훈육(18.5%)', '자녀보호(17.8%)'를 선택하였다.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의 집단에서는 '경제적 지원의 역할(30.3%)'과, '훈육적 역할(20.1%)'을 여성의 집단에서는 '경제적 지원의 역할(30.7%)'과 '자녀보호의 역할(20.0%)'을 선택, 혼인여부의 집단에서는 미혼의 집단에서는 '경제적 지원의 역할(31.5%)'과, '자녀보호의 역할(18.3%)'을 결혼의 집단에서는 '경제적 지원의 역할(26.1%)'과 '훈육적 역할(21.6%)'을 선택하였다. 거주지집단으로는 제주시 동지역의 집단에서는 '경제적 지원의 역할(29.4%)'과 '자녀보호의 역할(19.3%)'의 응답이 높았고, 서귀포 동지역과 기타지역에서는 '경제적 지원의 역할'과 '훈육적 역할'의 선택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표IV-27>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유목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전체
	고졸&대학재학	대학교졸업	대학생	그외	0	1-100 미만	100 이상	
경제적지원	145 (31.2)	95 (29.7)	136 (30.7)	104 (30.4)	144 (32.4)	44 (32.4)	52 (25.5)	720 (30.6)
사회가치관전달	63 (13.5)	59 (18.4)	64 (14.4)	58 (17.0)	64 (14.4)	21 (15.4)	37 (18.1)	366 (15.5)
훈육	85 (18.3)	60 (18.8)	79 (17.8)	66 (19.3)	86 (19.3)	21 (15.4)	38 (18.6)	435 (18.5)
의논상대자 및 친구	66 (14.2)	43 (13.4)	64 (14.4)	45 (13.2)	51 (11.5)	21 (15.4)	37 (18.1)	327 (13.9)
건강 및 영양관리	12 (2.6)	13 (4.1)	10 (2.3)	15 (4.4)	13 (2.9)	2 (1.5)	10 (4.9)	75 (3.2)
자녀보호	90 (19.4)	50 (15.6)	86 (19.4)	54 (15.8)	84 (18.9)	26 (19.1)	30 (14.7)	420 (17.8)
기타	4 (.9)	0 (.0)	4 (.9)	0 (.0)	3 (.7)	1 (.7)	0 (.0)	12 (.5)
전체	465 (100.0)	320 (100.0)	443 (100.0)	342 (100.0)	445 (100.0)	136 (100.0)	204 (100.0)	2355 (100.0)
χ^2	25.47(6)***		13.70(6)*		197.48(12)***			

*** P<.05, ** P<.001

<표IV-27>에서 학력($\chi^2=25.47$, $p<.001$), 직업($\chi^2=13.70$, $p<.05$), 월평균소득($\chi^2=197.48$, $p<.001$)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경제적지원(30.6%)', '훈육(18.5%)', '자녀보호(17.8%)'를 선택하였다.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학력에서 고졸&대학재학의 집단에서는 '경제적 지원의 역할(31.2%)'과, '자녀보호(19.4%)'를 선택하였고, 대졸의 집단에서는 '경제적 지원의 역할(29.7%)'과 '훈육(18.8%)'을 선택하였다. 직업의 집단에서 대학생 집단에서는 '경제적 지원의 역할(30.7%)'과, '자녀보호의 역할(19.4%)'을 선택하였고, 그 외 집단에서는 '경제적 지원의 역할(30.4%)'과 '훈육적 역할(19.3%)'을 선택하였다. 월평균소득집단으로는 소득이 없는 집단에서 '경제적 지원의 역할(32.4%)'과 '훈육의 역할(19.3%)'의 응답이 높았고, 100만원 미만의 집단에서는 '경제적지원(32.4%)'과 '자녀보호(19.1%)', 1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는 '경제적 지원의 역할(25.5%)'과 '훈육적 역할(18.6%)'의 선택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표 IV-28>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자녀교육책임에 대한 생각

구분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전체
	남성	여성	미혼	결혼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기타	
어머니가 대부분	10 (8.3)	22 (7.5)	27 (7.8)	5 (7.5)	19 (7.0)	3 (4.5)	10 (13.2)	32 (7.7)
아버지가 대부분	5 (4.2)	7 (2.4)	10 (2.9)	2 (3.0)	9 (3.3)	1 (1.5)	2 (2.6)	12 (2.9)
동등하게	101 (84.2)	266 (90.2)	308 (88.5)	59 (88.1)	243 (89.0)	62 (93.9)	62 (81.6)	367 (88.4)
기타	4 (3.3)	0 (.0)	3 (.9)	1 (1.5)	2 (.7)	0 (.0)	2 (2.6)	4 (1.0)
전체	120 (100.0)	295 (100.0)	348 (100.0)	67 (100.0)	273 (100.0)	66 (100.0)	76 (100.0)	415 (100.0)
$\chi^2(df)$	11.215(3)* .011		.242(3) .971		8.208(6) .223			

* P<.05

<표 IV-29>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자녀교육책임에 대한 생각

구분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전체
	고졸& 대학재학	대학교 졸업	대학생	그 외	0	1-100 미만	100 이상	
어머니가 대부분	21 (8.5)	11 (6.5)	20 (8.6)	12 (6.6)	18 (7.5)	9 (12.7)	5 (4.8)	32 (7.7)
아버지가 대부분	6 (2.4)	6 (3.6)	4 (1.7)	8 (4.4)	9 (3.8)	0 (.0)	3 (2.9)	12 (2.9)
동등하게	217 (88.2)	150 (88.8)	206 (88.4)	161 (88.5)	212 (88.3)	61 (85.9)	94 (90.4)	367 (88.4)
기타	2 (.8)	2 (1.2)	3 (1.3)	1 (.5)	1 (.4)	1 (1.4)	2 (1.9)	4 (1.0)
전체	246 (100.0)	169 (100.0)	233 (100.0)	182 (100.0)	240 (100.0)	71 (100.0)	104 (100.0)	415 (100.0)
$\chi^2(df)$	1.108(3) .775		3.639(3) .303		8.065(6) .233			

<표 II-28>와 같이 성별에 따른 자녀교육책임의 질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chi^2=11.215$, $p<.05$). “동등하게”의 응답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성별에 따른 자녀교육책임에 관한 질문에 총 415명 중 367명(88.4%)이 ‘동등하게’를 선택하였다. 집단으로 살펴볼 때 남성이 101명(84.2%)이 선택하였고, 여성이 266명(90.2%)이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I-28>와 <표 II-29>에서 혼인여부, 거주지,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자녀교육책임의 질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IV-30>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자녀교육시 가장 힘들 것

구분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전체
	남성	여성	미혼	결혼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기타	
경제적부담	47 (39.2)	136 (46.1)	160 (46.0)	23 (34.3)	128 (46.9)	24 (36.4)	31 (40.8)	183 (44.1)
양육자 선정	1 (.8)	5 (1.7)	5 (1.4)	1 (1.5)	5 (1.8)	0 (.0)	1 (1.3)	6 (1.4)
부부간 양육관 차이	19 (15.8)	35 (11.9)	49 (14.1)	5 (7.5)	33 (12.1)	10 (15.2)	11 (14.5)	54 (13.0)
양육기관 선정	2 (1.7)	8 (2.7)	7 (2.0)	3 (4.5)	4 (1.5)	4 (6.1)	2 (2.6)	10 (2.4)
육아지식 부족	17 (14.2)	28 (9.5)	36 (10.3)	9 (13.4)	28 (10.3)	6 (9.1)	11 (14.5)	45 (10.8)
신체적 소진	4 (3.3)	7 (2.4)	10 (2.9)	1 (1.5)	8 (2.9)	2 (3.0)	1 (1.3)	11 (2.7)
육아 스트레스	12 (10.0)	28 (9.5)	32 (9.2)	8 (11.9)	22 (8.1)	10 (15.2)	8 (10.5)	40 (9.6)
사회적 고립감	1 (.8)	4 (1.4)	4 (1.1)	1 (1.5)	3 (1.1)	0 (.0)	2 (2.6)	5 (1.2)
경제 활동, 사회 참여 기회제한	8 (6.7)	29 (9.8)	30 (8.6)	7 (10.4)	23 (8.4)	6 (9.1)	8 (10.5)	37 (8.9)
자녀양육 지원 기관의 부족	7 (5.8)	12 (4.1)	13 (3.7)	6 (9.0)	15 (5.5)	3 (4.5)	1 (1.3)	19 (4.6)
기타	2 (1.7)	3 (1.0)	2 (.6)	3 (4.5)	4 (1.5)	1 (1.5)	0 (.0)	5 (1.2)
전체	120 (100.0)	295 (100.0)	348 (100.0)	67 (100.0)	273 (100.0)	66 (100.0)	76 (100.0)	415 (100.0)
$\chi^2(df)$	6.858(10) .739		17.088(10) .072		18.489(20) .555			

<표IV-31>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자녀교육시 가장 힘들 것

구분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전체
	고졸& 대학재학	대학교 졸업	대학생	그 외	0	1-100 미만	100 이상	
경제적부담	111 (45.1)	72 (42.6)	108 (46.4)	75 (41.2)	109 (45.4)	38 (53.5)	36 (34.6)	183 (44.1)
양육자 선정	1 (.4)	5 (3.0)	0 (.0)	6 (3.3)	5 (2.1)	0 (.0)	1 (1.0)	6 (1.4)
부부간 양육관 차이	38 (15.4)	16 (9.5)	38 (16.3)	16 (8.8)	39 (16.3)	9 (12.7)	6 (5.8)	54 (13.0)
양육기관 선정	5 (2.0)	5 (3.0)	3 (1.3)	7 (3.8)	6 (2.5)	1 (1.4)	3 (2.9)	10 (2.4)
육아지식 부족	27 (11.0)	18 (10.7)	25 (10.7)	20 (11.0)	26 (10.8)	4 (5.6)	15 (14.4)	45 (10.8)
신체적 소진	8 (3.3)	3 (1.8)	7 (3.0)	4 (2.2)	4 (1.7)	3 (4.2)	4 (3.8)	11 (2.7)
육아 스트레스	26 (10.6)	14 (8.3)	23 (9.9)	17 (9.3)	21 (8.8)	7 (9.9)	12 (11.5)	40 (9.6)

사회적 고립감	0 (.0)	5 (3.0)	0 (.0)	5 (2.7)	3 (1.3)	0 (.0)	2 (1.9)	5 (1.2)
경제 활동, 사회 참여 기회제한	17 (6.9)	20 (11.8)	18 (7.7)	19 (10.4)	16 (6.7)	7 (9.9)	14 (13.5)	37 (8.9)
자녀양육 지원 기관의 부족	11 (4.5)	8 (4.7)	10 (4.3)	9 (4.9)	9 (3.8)	2 (2.8)	8 (7.7)	19 (4.6)
기타	2 (.8)	3 (1.8)	1 (.4)	4 (2.2)	2 (.8)	0 (.0)	3 (2.9)	5 (1.2)
전체	246 (100.0)	169 (100.0)	233 (100.0)	182 (100.0)	240 (100.0)	71 (100.0)	104 (100.0)	415 (100.0)
$\chi^2(df)$	19.930(10)* .030		25.789(10)** .004		29.503(20) .078			

* P<.05, ** P<.01

<표Ⅲ-30>와 <표Ⅲ-31>을 살펴보면, <표Ⅲ-30>의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와 <표Ⅲ-28>의 월평균소득에 따른 자녀교육 시 가장 힘들 것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Ⅲ-31>에서 학력($\chi^2=19.930$, $p<.05$)과 직업($\chi^2=25.789$, $p<.01$)에 따라 자녀 교육 시 가장 힘들 것이라 생각되는 항목에 관한 질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총 415명 중 183명(44.1%)은 '경제적부담'이라고 응답했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고졸&대학재학의 집단에서 111명(45.1%)이 선택하였고, 대학교졸업의 집단에서 72명(42.6%)이 선택하였다. 또한 직업의 집단에서는 대학생 108명(46.4%)이 선택하고 그 외 집단이 75명(41.2%)이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예비부모교육 필요여부, 예비부모교육 필요이유, 예비부모교육 참여의지, 원하는 예비부모교육 내용과 방법, 예비부모교육 시 중요한 것, 예비부모교육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으로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IV-32>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예비부모교육 필요여부

구분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전체
	남성	여성	미혼	결혼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기타	
필요하다	113 (94.2)	290 (98.3)	338 (97.1)	65 (97.0)	263 (96.3)	65 (98.5)	75 (98.7)	403 (97.1)
필요하지 않다	7 (5.8)	5 (1.7)	10 (2.9)	2 (3.0)	10 (3.7)	1 (1.5)	1 (1.3)	12 (2.9)
전체	120 (100.0)	295 (100.0)	348 (100.0)	67 (100.0)	273 (100.0)	66 (100.0)	76 (100.0)	415 (100.0)
$\chi^2(df)$	5.203(1)* .030		.002(1) .603		1.696(2) .428			

P<.05

<표IV-33>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예비부모교육 필요여부

구분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전체
	고졸&대학 재학	대학교 졸업	대학생	그 외	0	1-100 미만	100 이상	
필요하다	237 (96.3)	166 (98.2)	225 (96.6)	178 (97.8)	234(97.5)	69 (97.2)	100 (96.2)	403 (97.1)
필요하지 않다	9 (3.7)	3 (1.8)	8 (3.4)	4 (2.2)	6(2.5)	2 (2.8)	4 (3.8)	12 (2.9)
전체	246 (100.0)	169 (100.0)	233 (100.0)	182 (100.0)	240 (100.0)	71 (100.0)	104 (100.0)	415 (100.0)
$\chi^2(df)$	1.266(1) .207		.556(1) .331		.470(2) .791			

<표III-32>와 <표III-33>을 살펴보면, <표III-32>에서 성별에 따른 예비부모교육 필요여부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chi^2=5.203$, $p<.05$).

총 415명 중 ‘필요하다’라고 403명(97.1%)이 선택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집단으로 보면, 남성이 113명(94.2%)이 선택하였고, 여성이 290명(98.3%)이 선택하였다.

<표IV-34>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예비부모교육 필요이유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전체
	남성	여성	미혼	결혼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기타	
자녀의 재능을 제대로 찾아주기	37 (32.7)	52 (17.9)	72 (21.3)	17 (26.2)	57 (21.7)	14 (21.5)	18 (24.0)	89 (22.1)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을 지기	64 (56.6)	214 (73.8)	244 (72.2)	34 (52.3)	182 (69.2)	45 (69.2)	51 (68.0)	278 (69.0)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하기	3 (2.7)	8 (2.8)	10 (3.0)	1 (1.5)	6 (2.3)	1 (1.5)	4 (5.3)	11 (2.7)
좋은부모가 되어 사회적으로인정받기	4 (3.5)	12 (4.1)	7 (2.1)	9 (13.8)	11 (4.2)	4 (6.2)	1 (1.3)	16 (4.0)

기타	5 (4.4)	4 (1.4)	5 (1.5)	4 (6.2)	7 (2.7)	1 (1.5)	1 (1.3)	9 (2.2)
전체	113 (100.0)	290 (100.0)	338 (100.0)	65 (100.0)	263 (100.0)	65 (100.0)	75 (100.0)	403 (100.0)
$\chi^2(df)$	15.002(4) ^{**} .005		28.481(4) ^{***} .000		5.313(8) .724			

^{**} P<.01, ^{***} P<.001

<표IV-35>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예비부모교육 필요이유

구분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전체
	고졸&대학재학	대학교졸업	대학생	그 외	0	1-100미만	100이상	
자녀의 재능을 제대로 찾아주기	43 (18.1)	46 (27.7)	40 (17.8)	49 (27.5)	48 (20.5)	9 (13.0)	32 (32.0)	89 (22.1)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을 지기	177 (74.7)	101 (60.8)	172 (76.4)	106 (59.6)	167 (71.4)	55 (79.7)	56 (56.0)	278 (69.0)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하기	5 (2.1)	6 (3.6)	5 (2.2)	6 (3.4)	5 (2.1)	1 (1.4)	5 (5.0)	11 (2.7)
좋은부모가 되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6 (2.5)	10 (6.0)	3 (1.3)	13 (7.3)	11 (4.7)	1 (1.4)	4 (4.0)	16 (4.0)
기타	6 (2.5)	3 (1.8)	5 (2.2)	4 (2.2)	3 (1.3)	3 (4.3)	3 (3.0)	9 (2.2)
전체	237 (100.0)	166 (100.0)	225 (100.0)	178 (100.0)	234 (100.0)	69 (100.0)	100 (100.0)	403 (100.0)
$\chi^2(df)$	10.795(4) [*] .029		17.792(4) ^{**} .001		17.671(8) [*] .024			

^{**} P<.05, ^{***} P<.01

<표II-34>과 <표II-35>에서는 예비부모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질문의 검증결과이다. 거주지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성별($\chi^2=15.002$, $p<.01$), 혼인여부($\chi^2=28.481$, $p<.001$), 학력($\chi^2=10.795$, $p<.05$), 직업($\chi^2=17.792$, $p<.01$), 월평균소득($\chi^2=17.671$, $p<.05$)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총 403명 중 278명(69.0%)이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이라고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89명(22.1%)이 '자녀의 재능을 찾아주기 위하여'라고 선택하였다. 집단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64명(56.6%), 214명(73.8)이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하여'를 선택하였고, 혼인여부로는 미혼과 결혼의 집단이 각각 244명(72.2%)과 34명(52.3%)이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학력의 집단으로는 고졸&대학재학의 집단과 대학교졸업의 집단이 각각 177명(74.7%)과 101명(60.8%)이, 직업의 집단으로는 대학생과 그 외 집단이 각각 172명(76.4%)과 106명(59.6%)이, 월평균소득의 집단으로 0, 1-100미만, 100만원 이상의 집단이 각각 167명(71.4%)과 55명(79.7%)과 56명(56.0%)이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으로 살펴보아도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자녀의 재능을 찾아주기 위하여'로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표IV-36>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예비부모교육 참여의지

구분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전체
	남성	여성	미혼	결혼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기타	
무조건 참석	31 (25.8)	99 (33.6)	107 (30.7)	23 (34.3)	88 (32.2)	18 (27.3)	24 (31.6)	130 (31.3)
무조건 불참	4 (3.3)	1 (.3)	4 (1.1)	1 (1.5)	2 (.7)	1 (1.5)	2 (2.6)	5 (1.2)
시간이 되면 참석	83 (69.2)	195 (66.1)	235 (67.5)	43 (64.2)	182 (66.7)	46 (69.7)	50 (65.8)	278 (67.0)
기타	2 (1.7)	0 (.0)	2 (.6)	0 (.0)	1 (.4)	1 (1.5)	0 (.0)	2 (.5)
전체	120 (100.0)	295 (100.0)	348 (100.0)	67 (100.0)	273 (100.0)	66 (100.0)	76 (100.0)	415 (100.0)
$\chi^2(df)$	13.010(3) ** .005		.764(3) .858		4.259(6) .642			

** P<.01

<표IV-37>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예비부모교육 참여의지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전체
	고졸& 대학재학	대학교 졸업	대학생	그 외	0	1-100미만	100만원 이상	
무조건 참석	70 (28.5)	60 (35.5)	60 (25.8)	70 (38.5)	74 (30.8)	26 (36.6)	30 (28.8)	130 (31.3)
무조건 불참	3 (1.2)	2 (1.2)	2 (.9)	3 (1.6)	4 (1.7)	0 (.0)	1 (1.0)	5 (1.2)
시간이 되면 참석	172 (69.9)	106 (62.7)	170 (73.0)	108 (59.3)	161 (67.1)	45 (63.4)	72 (69.2)	278 (67.0)
기타	1 (.4)	1 (.6)	1 (.4)	1 (.5)	1 (.4)	0 (.0)	1 (1.0)	2 (.5)
전체	246 (100.0)	169 (100.0)	233 (100.0)	182 (100.0)	240 (100.0)	71 (100.0)	104 (100.0)	415 (100.0)
$\chi^2(df)$	2.435(3) .487		8.660(3) * .034		3.265(6) .775			

* P<.05

<표 II -36>과 <표 II -37>에서 나타난 결과는 성별($\chi^2=13.010$, $p<.01$)과 직업($\chi^2=8.660$, $p<.05$)에 따른 예비부모교육 참여의지에 관한 질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성별에 따른 예비부모교육 참여의지에 관한 질문에 총 415명 중 278명(67.0%)이 '시간이 되면 참석'이라고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130명(31.3%)이 '무조건 참석'을 선택하였다. 집단으로 보면, '시간이 되면 참석'이라고 선택한 남성집단이 83명(69.2%)이었고, 여성집단이 195명(66.1%)이었으며, '무조건 참석'이라고 선택한 남성집단이 31명(25.8%)이었고, 여성집단이 99명(33.6%)이었다. 또한 '시간이 되면 참석'이라고 선택한 대학생집단이 170명(73.0%)이었고, 그 외집단이 108명(59.3%)이었으며, '무조건 참석'이라고 선택한 대학생집단이 60명(25.8%)이었고, 그 외 집단이 70명(38.5%)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예비부모들이 예비부모교육에 대하여 참석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IV-38>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원하는 예비부모교육 내용

구분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전체
	남성	여성	미혼	결혼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기타	
문제행동지도	10 (8.4)	28 (9.5)	35 (10.1)	3 (4.5)	27 (10.0)	2 (3.0)	9 (11.8)	38 (9.2)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	53 (44.5)	146 (49.7)	177 (51.2)	22 (32.8)	136 (50.2)	30 (45.5)	33 (43.4)	199 (48.2)
아동발달에 기초한 지도법	28 (23.5)	60 (20.4)	69 (19.9)	19 (28.4)	57 (21.0)	13 (19.7)	18 (23.7)	88 (21.3)
임신·태교· 출산·피임	10 (8.4)	19 (6.5)	24 (6.9)	5 (7.5)	21 (7.7)	4 (6.1)	4 (5.3)	29 (7.0)
자녀학습지도	7 (5.9)	10 (3.4)	13 (3.8)	4 (6.0)	7 (2.6)	6 (9.1)	4 (5.3)	17 (4.1)
아동건강관리	2 (1.7)	1 (.3)	2 (.6)	1 (1.5)	0 (.0)	3 (4.5)	0 (.0)	3 (.7)
기본생활습관 지도법	9 (7.6)	30 (10.2)	26 (7.5)	13 (19.4)	23 (8.5)	8 (12.1)	8 (10.5)	39 (9.4)
전체	119 (100.0)	294 (100.0)	346 (100.0)	67 (100.0)	271 (100.0)	66 (100.0)	76 (100.0)	413 (100.0)
χ^2 (df)	5.407(6) .493		17.452(6)** .008		27.470(12)** .007			

** P<.01

<표IV-39>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원하는 예비부모교육 내용

구분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전체
	고졸& 대학재학	대학교 졸업	대학생	그 외	0	1-100미만	100이상	
문제행동지도	18 (7.4)	20 (11.8)	18 (7.8)	20 (11.0)	18 (7.5)	11 (15.5)	9 (8.7)	38 (9.2)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	131 (53.7)	68 (40.2)	126 (54.5)	73 (40.1)	121 (50.6)	35 (49.3)	43 (41.7)	199 (48.2)
아동발달에 기초한 지도법	48 (19.7)	40 (23.7)	43 (18.6)	45 (24.7)	48 (20.1)	8 (11.3)	32 (31.1)	88 (21.3)
임신·태교·출산·피임	13 (5.3)	16 (9.5)	14 (6.1)	15 (8.2)	17 (7.1)	8 (11.3)	4 (3.9)	29 (7.0)
자녀학습지도	10 (4.1)	7 (4.1)	8 (3.5)	9 (4.9)	8 (3.3)	6 (8.5)	3 (2.9)	17 (4.1)
아동건강관리	1 (.4)	2 (1.2)	0 (.0)	3 (1.6)	2 (.8)	0 (.0)	1 (1.0)	3 (.7)
기본생활습관 지도법	23 (9.4)	16 (9.5)	22 (9.5)	17 (9.3)	25 (10.5)	3 (4.2)	11 (10.7)	39 (9.4)
전체	244 (100.0)	169 (100.0)	231 (100.0)	182 (100.0)	239 (100.0)	71 (100.0)	103 (100.0)	413 (100.0)
χ^2 (df)	9.914(6) .128		12.361(6) .054		23.468(12)* .024			

* P<0.05

<표Ⅱ-38>와 <표Ⅱ-39>을 살펴보면 혼인여부($\chi^2=17.452$, $p<.01$), 거주지($\chi^2=27.470$, $p<.01$), 월평균소득($\chi^2=23.468$, $p<.05$)에 따른 예비부모교육내용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총 413명 중 199명(48.2%)이 '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는 88명(21.2%)이 '아동발달 지도법'을 선택하였다. 이는 집단으로 비교하여 보면, 혼인여부에서 미혼집단과 결혼집단에서 '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을 각각 177명(51.2%)과 22명(32.8%)이 선택하였고 '아동발달에 기초한 지도법'을 각각 69명(19.9%)과 19명(28.4%)이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주지에서 제주시동지역, 서귀포시동지역, 기타지역에서 '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을 각각 136명(50.2%)과 30명(45.5%), 33명(43.4%)이 선택하였고, '아동발달에 기초한 지도법'을 각각 57명(21.0%), 13명(19.7%), 18명(23.7%)이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월평균소득의 집단에서는 0, 1-100미만, 100만원 이상에서 '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을 각각 121명(50.6%), 35명(49.3%), 43명(41.7%)이 선택하였고, '아동발달에 기초한 지도법'을 각각 48명(20.1%), 8명(11.3%), 32명(31.1%)이 선택하였으나 1-100미만의 집단에서는 11명(15.5%)이 '문제행동지도'를 '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 다음으로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비부모들은 '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과 '아동발달 지도법'에 대한 예비부모교육의 내용을 선택하였다.

<표IV-40>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원하는 예비부모교육 방법

구분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전체
	남성	여성	미혼	결혼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기타	
교과목	7 (5.9)	18 (6.1)	22 (6.4)	3 (4.5)	16 (5.9)	2 (3.0)	7 (9.2)	25 (6.1)
전문가 강좌(특강)	79 (66.4)	209 (71.1)	241 (69.7)	47 (70.1)	184 (67.9)	54 (81.8)	50 (65.8)	288 (69.7)
인터넷, TV 프로그램 등	32 (26.9)	66 (22.4)	81 (23.4)	17 (25.4)	70 (25.8)	10 (15.2)	18 (23.7)	98 (23.7)
기타	1 (.8)	1 (.3)	2 (.6)	0 (.0)	1 (.4)	0 (.0)	1 (1.3)	2 (.5)
전체	119 (100.0)	294 (100.0)	346 (100.0)	67 (100.0)	271 (100.0)	66 (100.0)	76 (100.0)	413 (100.0)
$\chi^2(df)$	1.419(3) .701		.808(3) .847		7.971(6) .240			

<표IV-41>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원하는 예비부모교육 방법

구분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전체
	고졸& 대학재학	대학교 졸업	대학생	그 외	0	1-100 미만	100 이상	
교과목	11 (4.5)	14 (8.3)	9 (3.9)	16 (8.8)	15 (6.3)	5 (7.0)	5 (4.9)	25 (6.1)
전문가 강좌(특강)	163 (66.8)	125 (74.0)	156 (67.5)	132 (72.5)	164 (68.6)	47 (66.2)	77 (74.8)	288 (69.7)
인터넷, TV 프로그램 등	70 (28.7)	28 (16.6)	66 (28.6)	32 (17.6)	59 (24.7)	19 (26.8)	20 (19.4)	98 (23.7)
기타	0 (.0)	2 (1.2)	0 (.0)	2 (1.1)	1 (.4)	0 (.0)	1 (1.0)	2 (.5)
전체	244 (100.0)	169 (100.0)	231 (100.0)	182 (100.0)	239 (100.0)	71 (100.0)	103 (100.0)	413 (100.0)
$\chi^2(df)$	12.155(3)** .007		12.113(3)** .007		2.965(6) .813			

** P<.01

<표III-40>과 <표III-41>에서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력($\chi^2=12.155$, $p<.01$)과 직업($\chi^2=12.113$, $p<.01$)에 따른 원하는 예비부모교육방법에 관한 질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총 413명 중 288명(69.7%)이 '전문가 강좌(특강)'을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98명(23.7%)이 '인터넷, TV프로그램 등 매체를 통해'라는 응답을 하였다. 집단으로 살펴보면 학력에서 고졸&대학재학 집단과 대학교졸업 집단이 '전문가강좌(특강)'를 163명(66.8%)과 125명(74.0%)이 선택하였고, '인터넷, TV프로그램 등 매체를 통해'를 각각 70명(28.7%), 28명(16.6%)이 선택하였다. 또한 직업의 집단에서는 대학생이 '전문가강좌(특강)'을

대학생 집단과 그 외 집단이 각각 156명(67.5%)과 132명(72.5%)이 선택하였고, '인터넷, TV프로그램 등 매체를 통해'를 각각 66명(28.6%)과 32명(17.6%)이 선택하였음을 나타내어 학력과 직업의 집단으로 보아도 동등한 순위로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Ⅳ-42>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예비부모교육 시 중요한 것

구분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전체
	남성	여성	미혼	결혼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기타	
교육 내용	72 (60.5)	180 (61.0)	208 (59.9)	44 (65.7)	162 (59.6)	43 (65.2)	47 (61.8)	252 (60.9)
강사 능력	13 (10.9)	23 (7.8)	28 (8.1)	8 (11.9)	27 (9.9)	4 (6.1)	5 (6.6)	36 (8.7)
교육 방식	33 (27.7)	92 (31.2)	110 (31.7)	15 (22.4)	82 (30.1)	19 (28.8)	24 (31.6)	125 (30.2)
기타	1 (.8)	0 (.0)	1 (.3)	0 (.0)	1 (.4)	0 (.0)	0 (.0)	1 (.2)
전체	119 (100.0)	295 (100.0)	347 (100.0)	67 (100.0)	272 (100.0)	66 (100.0)	76 (100.0)	414 (100.0)
χ^2 (df)	3.772(3) .287		3.077(3) .380		2.294(6) .891			

<표Ⅳ-43>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예비부모교육 시 중요한 것

구분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전체
	고졸& 대학재학	대학교 졸업	대학생	그 외	0	1-100 미만	100 이상	
교육 내용	145 (59.2)	107 (63.3)	137 (59.1)	115 (63.2)	145 (60.7)	38 (53.5)	69 (66.3)	252 (60.9)
강사 능력	20 (8.2)	16 (9.5)	19 (8.2)	17 (9.3)	15 (6.3)	11 (15.5)	10 (9.6)	36 (8.7)
교육 방식	79 (32.2)	46 (27.2)	75 (32.3)	50 (27.5)	78 (32.6)	22 (31.0)	25 (24.0)	125 (30.2)
기타	1 (.4)	0 (.0)	1 (.4)	0 (.0)	1 (.4)	0 (.0)	0 (.0)	1 (.2)
전체	245 (100.0)	169 (100.0)	232 (100.0)	182 (100.0)	239 (100.0)	71 (100.0)	104 (100.0)	414 (100.0)
χ^2 (df)	2.002(3) .572		2.023(3) .568		9.151(6) .165			

<표Ⅲ-42>와 <표Ⅲ-43>의 결과는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빈도적인 결과로 전체 414명 중 252명(60.9%)이 '교육내용'이 중요하다고 선택하였고, 125명(30.2%)이 '교육 방식'이 중요하다고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IV-44>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예비부모교육 적절시기

구분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전체
	남성	여성	미혼	결혼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기타	
10대	4 (3.4)	16 (5.4)	15 (4.3)	5 (7.5)	8 (3.0)	7 (10.6)	5 (6.6)	20 (4.8)
대학시절	16 (13.4)	59 (20.1)	72 (20.8)	3 (4.5)	48 (17.7)	15 (22.7)	12 (15.8)	75 (18.2)
결혼 전	56 (47.1)	134 (45.6)	167 (48.3)	23 (34.3)	134 (49.4)	28 (42.4)	28 (36.8)	190 (46.0)
결혼 후	27 (22.7)	54 (18.4)	63 (18.2)	18 (26.9)	49 (18.1)	10 (15.2)	22 (28.9)	81 (19.6)
임신 후	16 (13.4)	30 (10.2)	28 (8.1)	18 (26.9)	31 (11.4)	6 (9.1)	9 (11.8)	46 (11.1)
기타	0 (.0)	1 (.3)	1 (.3)	0 (.0)	1 (.4)	0 (.0)	0 (.0)	1 (.2)
전체	119 (100.0)	294 (100.0)	346 (100.0)	67 (100.0)	271 (100.0)	66 (100.0)	76 (100.0)	413 (100.0)
$\chi^2(df)$	4.854(5) .434		31.848(5)*** .000		15.491(10) .115			

*** P<.001

<표IV-45>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예비부모교육 적절시기

구분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전체
	고졸& 대학재학	대학교 졸업	대학생	그 외	0	1-100미만	100이상	
10대	12 (4.9)	8 (4.7)	10 (4.3)	10 (5.5)	17 (7.1)	2 (2.8)	1 (1.0)	20 (4.8)
대학시절	56 (23.0)	19 (11.2)	51 (22.1)	24 (13.2)	44 (18.4)	20 (28.2)	11 (10.7)	75 (18.2)
결혼 전	127 (52.0)	63 (37.3)	121 (52.4)	69 (37.9)	117 (49.0)	34 (47.9)	39 (37.9)	190 (46.0)
결혼 후	33 (13.5)	48 (28.4)	33 (14.3)	48 (26.4)	44 (18.4)	8 (11.3)	29 (28.2)	81 (19.6)
임신 후	16 (6.6)	30 (17.8)	16 (6.9)	30 (16.5)	17 (7.1)	7 (9.9)	22 (21.4)	46 (11.1)
기타	0 (.0)	1 (.6)	0 (.0)	1 (.5)	0 (.0)	0 (.0)	1 (1.0)	1 (.2)
전체	244 (100.0)	169 (100.0)	231 (100.0)	182 (100.0)	239 (100.0)	71 (100.0)	103 (100.0)	413 (100.0)
$\chi^2(df)$	36.225(5)*** .000		26.550(5)*** .000		38.205(10)*** .000			

*** P<.001

<표III-44>과 <표III-45>에서는 혼인여부($\chi^2=31.848$, $p<.001$), 학력($\chi^2=36.225$, $p<.001$), 직업($\chi^2=26.550$, $p<.001$), 월평균소득($\chi^2=38.205$, $p<.001$)에 따른 예비부모교육의 적절시기에 관한 질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총 413명 중 190명(46.0%)이 '결혼 전'이라는 응답이었다. 이는 집단별로 살펴보았을 때도 '결혼 전'이라는 선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과 거주지에 따른 예비부모교육의 적절시기에 관한 질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4. 예비부모들의 자녀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인식

예비부모들의 자녀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중요한 기관의 교육내용, 기관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기관에 원하는 교육법, 기관에 보내는 이유, 기관선택시 중요점에 대해서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으로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IV-46>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중요한 기관교육내용

구분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전체
	남성	여성	미혼	결혼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기타	
영양	4 (3.3)	6 (2.0)	9 (2.6)	1 (1.5)	7 (2.6)	1 (1.5)	2 (2.6)	10 (2.4)
보호·교육	12 (10.0)	83 (28.1)	81 (23.3)	14 (20.9)	62 (22.7)	18 (27.3)	15 (19.7)	95 (22.9)
인성	64 (53.3)	120 (40.7)	160 (46.0)	24 (35.8)	123 (45.1)	29 (43.9)	32 (42.1)	184 (44.3)
기본생활 습관	40 (33.3)	86 (29.2)	98 (28.2)	28 (41.8)	81 (29.7)	18 (27.3)	27 (35.5)	126 (30.4)
전체	120 (100.0)	295 (100.0)	348 (100.0)	67 (100.0)	273 (100.0)	66 (100.0)	76 (100.0)	415 (100.0)
$\chi^2(df)$	16.426(3)*** .001		5.163(3) .160		2.187(6) .902			

*** P<.001

<표IV-47>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중요한 기관교육내용

구분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전체
	고졸& 대학재학	대학교 졸업	대학생	그 외	0	1-100 미만	100 이상	
영양	6 (2.4)	4 (2.4)	7 (3.0)	3 (1.6)	7 (2.9)	2 (2.8)	1 (1.0)	10 (2.4)

보호·교육	65 (26.4)	30 (17.8)	63 (27.0)	32 (17.6)	58 (24.2)	22 (31.0)	15 (14.4)	95 (22.9)
인성	106 (43.1)	78 (46.2)	103 (44.2)	81 (44.5)	108 (45.0)	34 (47.9)	42 (40.4)	184 (44.3)
기본생활 습관	69 (28.0)	57 (33.7)	60 (25.8)	66 (36.3)	67 (27.9)	13 (18.3)	46 (44.2)	126 (30.4)
전체	246 (100.0)	169 (100.0)	233 (100.0)	182 (100.0)	240 (100.0)	71 (100.0)	104 (100.0)	415 (100.0)
χ^2 (df)	4.569(3) .206		8.493(3)* .037		17.721(6)** .007			

* P<.05, ** P<.01

<표Ⅲ-46>과 <표Ⅲ-47>와 같이 성별($\chi^2=16.426$, $p<.001$), 직업($\chi^2=8.493$, $p<.05$), 월평균소득($\chi^2=17.721$, $p<.01$)에 따른 기관에서의 중요한 기관에서의 교육내용에 관한 질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총 415명 중 184명(44.3%)이 '인성'을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기본생활습관'으로 126명(30.4%)이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 집단별로 살펴보았을 때, 성별집단의 남성과 여성의 집단에서 남성은 '인성'을 64명(53.3%)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기본생활습관'을 40명(33.3%)이 선택하였으며, 여성의 집단에서도 '인성'을 120명(40.7%)이 선택하고 다음으로 '기본생활습관'을 86명(29.2%)이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직업집단에서는 '인성'을 대학생과 그 외 집단에서 각각 103명(44.2%), 81명(44.5%)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기본생활습관'을 각각 60명(25.8%), 66명(36.3%)이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월평균소득의 집단에서는 0, 1-100미만의 집단에서는 '인성'을 각각 108명(45.0%), 34명(47.9%)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기본생활습관'을 각각 67명(27.9%), 13명(18.3%)이 선택하였으나, 1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는 '기본생활습관'을 46명(44.2%)이 선택하고 다음으로 '인성'을 42명(40.4%)이 선택하였다.

혼인여부, 거주지, 학력에 따른 중요한 기관의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다.

<표Ⅳ-48>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기관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구분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전체
	남성	여성	미혼	결혼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기타	
시설 상태	1 (.8)	12 (4.1)	13 (3.7)	0 (.0)	7 (2.6)	2 (3.0)	4 (5.3)	13 (3.1)

교사	80 (66.7)	177 (60.0)	210 (60.3)	47 (70.1)	175 (64.1)	40 (60.6)	42 (55.3)	257 (61.9)
함께 생활하는 영·유아	39 (32.5)	104 (35.3)	125 (35.9)	18 (26.9)	90 (33.0)	24 (36.4)	29 (38.2)	143 (34.5)
기타	0 (.0)	2 (.7)	0 (.0)	2 (3.0)	1 (.4)	0 (.0)	1 (1.3)	2 (.5)
전체	120 (100.0)	295 (100.0)	348 (100.0)	67 (100.0)	273 (100.0)	66 (100.0)	76 (100.0)	415 (100.0)
χ^2 (df)	4.462(3) .216		15.100(3)** .002		4.195(6) .650			

** P<.01

<표IV-49>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기관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구분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전체
	고졸& 대학재학	대학교 졸업	대학생	그 외	0	1-100 미만	100 이상	
시설 상태	10 (4.1)	3 (1.8)	10 (4.3)	3 (1.6)	10 (4.2)	3 (4.2)	0 (.0)	13 (3.1)
교사	137 (55.7)	120 (71.0)	129 (55.4)	128 (70.3)	138 (57.5)	41 (57.7)	78 (75.0)	257 (61.9)
또래 영·유아	99 (40.2)	44 (26.0)	94 (40.3)	49 (26.9)	92 (38.3)	27 (38.0)	24 (23.1)	143 (34.5)
기타	0 (.0)	2 (1.2)	0 (.0)	2 (1.1)	0 (.0)	0 (.0)	2 (1.9)	2 (.5)
전체	246 (100.0)	169 (100.0)	233 (100.0)	182 (100.0)	240 (100.0)	71 (100.0)	104 (100.0)	415 (100.0)
χ^2 (df)	14.251(3)** .003		13.876(3)** .003		19.377(6)** .004			

** P<.01

<표Ⅲ-48>와 <표Ⅲ-49>에서 살펴보면, 혼인여부($\chi^2=15.100$, $p<.01$), 학력($\chi^2=14.251$, $p<.01$), 직업($\chi^2=13.876$, $p<.01$), 월평균소득($\chi^2=19.377$, $p<.01$)에 따른 기관에서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에 관한 질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총 415명 중 257명(61.9%)이 '교사'를 선택하였다. 다음으로는 '또래 영유아'를 143명(34.5%)이 선택하였다. 혼인여부의 집단에서는 미혼집단 210명(60.3%)이 '교사'를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125명(35.9%)이 '또래 영유아'를 선택하였으며, 결혼집단이 47명(70.1%)이 '교사'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18명(26.9%)이 '또래 영유아'를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학력의 집단에서는 고졸&대학재학 집단에서 137명(55.7%)이 '교사'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99명(40.2%)이 '또래 영유아'를 선택하였으며, 대학교 졸업의 집단에서는 120명(71.0%)이 '교사'를 선택하고 44명(26.0%)이 '또래 영유아'를 선택하였다.

직업의 집단에서는 대학생과 그 외 집단이 각각 129명(55.4%)과 128명(70.3%)이 '교사'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대학생과 그 외 집단이 각각 94명(40.3%)과 49명(26.9%)이 '또래 영유아'를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월평균소득의 집단에서도 0, 1-100미만, 1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 각각 '교사'를 138명(57.5%), 41명(57.7%), 78명(75.0%)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또래 영유아'를 0, 1-100미만, 1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 각각 92명(38.3%), 27명(38.0%), 24명(23.1%)이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혼인,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의 집단에서도 같은 결과로 '교사'와 '또래 영유아'순으로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IV-50>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기관에 원하는 교육법

구분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전체
	남성	여성	미혼	결혼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기타	
사랑하며 안아줌 혼내면 안 됨	4 (3.3)	17 (5.8)	20 (5.7)	1 (1.5)	12 (4.4)	6 (9.1)	3 (3.9)	21 (5.1)
타이르기	63 (52.5)	153 (51.9)	181 (52.0)	35 (52.2)	144 (52.7)	31 (47.0)	41 (53.9)	216 (52.0)
말로써 꾸중	18 (15.0)	58 (19.7)	62 (17.8)	14 (20.9)	51 (18.7)	13 (19.7)	12 (15.8)	76 (18.3)
때때로 체벌도 필요	33 (27.5)	52 (17.6)	71 (20.4)	14 (20.9)	51 (18.7)	15 (22.7)	19 (25.0)	85 (20.5)
기타	2 (1.7)	15 (5.1)	14 (4.0)	3 (4.5)	15 (5.5)	1 (1.5)	1 (1.3)	17 (4.1)
전체	120 (100.0)	295 (100.0)	348 (100.0)	67 (100.0)	273 (100.0)	66 (100.0)	76 (100.0)	415 (100.0)
$\chi^2(df)$	8.506(4) .075		2.336(4) .674		8.465(8) .389			

<표IV-51>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기관에 원하는 교육법

구분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전체
	고졸& 대학재학	대학교 졸업	대학생	그 외	0	1-100 미만	100 이상	
사랑하며 안아줌 혼내면 안 됨	11 (4.5)	10 (5.9)	10 (4.3)	11 (6.0)	15 (6.3)	4 (5.6)	2 (1.9)	21 (5.1)
타이르기	121 (49.2)	95 (56.2)	118 (50.6)	98 (53.8)	119 (49.6)	37 (52.1)	60 (57.7)	216 (52.0)
말로써 꾸중	52 (21.1)	24 (14.2)	49 (21.0)	27 (14.8)	48 (20.0)	12 (16.9)	16 (15.4)	76 (18.3)
때때로 체벌도 필요	56 (22.8)	29 (17.2)	49 (21.0)	36 (19.8)	50 (20.8)	15 (21.1)	20 (19.2)	85 (20.5)
기타	6 (2.4)	11 (6.5)	7 (3.0)	10 (5.5)	8 (3.3)	3 (4.2)	6 (5.8)	17 (4.1)

전체	246 (100.0)	169 (100.0)	233 (100.0)	182 (100.0)	240 (100.0)	71 (100.0)	104 (100.0)	415 (100.0)
$\chi^2(df)$	9.583(4) .048		4.587(4) .332		5.757(8) .674			

* P<0.05

<표Ⅲ-50>과 <표Ⅲ-51>에서는 변인에 따라 기관에서 바라는 교육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고, 학력에 따라 기관에서 바라는 교육법에 관한 질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chi^2=9.583$, $p<.05$).

총 415명 중 216명(52.0%)이 '타이르기'를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영유아기 시기이지만 '때때로 체벌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85명(20.5%)이 선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에서는 고졸&대학재학의 집단에서 '타이르기'를 121명(49.2%)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때때로 체벌도 필요'를 56명(22.8%)이 선택하였으며, '말로써 꾸중'을 52명(21.1%)이 선택하였다. 대학교졸업의 집단에서는 '타이르기'를 95명(56.2%)이 선택하고 '때때로 체벌도 필요'를 29명(17.2%)이 선택하였으며, '말로써 꾸중'을 24명(14.2%)이 선택하였다.

<표Ⅳ-52>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기관에 보내는 이유

구분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전체
	남성	여성	미혼	결혼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기타	
경제적이유 (맞벌이)	69 (57.5)	139 (47.1)	169 (48.6)	39 (58.2)	127 (46.5)	34 (51.5)	47 (61.8)	208 (50.1)
전문적인 가르침	35 (29.2)	122 (41.4)	136 (39.1)	21 (31.3)	111 (40.7)	24 (36.4)	22 (28.9)	157 (37.8)
사회적 인식 (의무교육)	9 (7.5)	22 (7.5)	26 (7.5)	5 (7.5)	21 (7.7)	6 (9.1)	4 (5.3)	31 (7.5)
기타	7 (5.8)	12 (4.1)	17 (4.9)	2 (3.0)	14 (5.1)	2 (3.0)	3 (3.9)	19 (4.6)
전체	120 (100.0)	295 (100.0)	348 (100.0)	67 (100.0)	273 (100.0)	66 (100.0)	76 (100.0)	415 (100.0)
$\chi^2(df)$	5.765(3) .124		2.375(3) .498		6.353(6) .385			

<표Ⅳ-53>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기관에 보내는 이유

구분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전체
	고졸& 대학재학	대학교 졸업	대학생	그 외	0	1-100 미만	100 이상	
경제적이유 (맞벌이)	108 (43.9)	100 (59.2)	97 (41.6)	111 (61.0)	105 (43.8)	33 (46.5)	70 (67.3)	208 (50.1)

전문적인 가르침	109 (44.3)	48 (28.4)	107 (45.9)	50 (27.5)	109 (45.4)	24 (33.8)	24 (23.1)	157 (37.8)
사회적 인식 (의무교육)	17 (6.9)	14 (8.3)	16 (6.9)	15 (8.2)	18 (7.5)	8 (11.3)	5 (4.8)	31 (7.5)
기타	12 (4.9)	7 (4.1)	13 (5.6)	6 (3.3)	8 (3.3)	6 (8.5)	5 (4.8)	19 (4.6)
전체	246 (100.0)	169 (100.0)	233 (100.0)	182 (100.0)	240 (100.0)	71 (100.0)	104 (100.0)	415 (100.0)
χ^2 (df)	11.732(3)** .008		18.256(3)*** .000		23.708(6)*** .001			

** P<.01, *** P<.001

<표Ⅲ-52>와 <표Ⅲ-53>에서는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나타내고자 하였다.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라 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학력($\chi^2=11.732$, $p<.01$), 직업($\chi^2=18.256$, $p<.001$), 월평균소득($\chi^2=23.708$, $p<.001$)에 따른 기관에 보내는 이유에 관한 질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총 415명 중 208명(50.1%)이 '경제적이유(맞벌이)'를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157명(37.8%)이 '전문적인 가르침'을 선택하였다. 집단으로 살펴보면 학력의 집단에서 고졸&대학재학과 대학교졸업의 집단이 '경제적이유'를 각각 108명(43.9%), 100명(59.2%)을 선택하였고, '전문적인 가르침'을 각각 109명(44.3%), 48명(28.4%)이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졸&대학재학의 집단에서 '전문적인 가르침'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다음으로 '경제적이유'를 선택한 결과이다. 직업의 집단에서는 대학생집단이 '전문적인 가르침'을 107명(45.9%)이 선택하고 다음으로 '경제적이유'를 97명(41.6%)이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외 집단은 '경제적이유'를 111명(61.0%)이 선택하고 '전문적인 가르침'을 50명(27.5%)이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월평균소득의 집단에서는 소득이 없는 집단에서 '전문적인 가르침'을 109명(45.4%)이 선택하고 '경제적이유'를 105명(43.8%)이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1-100미만의 집단에서와 100만원이상의 집단에서 각각 '경제적이유'를 33명(46.5%), 70명(67.3%)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전문적인 가르침'을 1-100만원 미만의 집단에서 24명(33.8%), 1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 24명(23.1%)이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IV-54>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에 따른 기관선택시 중요점

구분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전체
	남성	여성	미혼	결혼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기타	
시설 상태	12 (10.0)	40 (13.6)	45 (12.9)	7 (10.4)	34 (12.5)	11 (16.7)	7 (9.2)	52 (12.5)
보육교사의 자질	61 (50.8)	159 (53.9)	188 (54.0)	32 (47.8)	152 (55.7)	30 (45.5)	38 (50.0)	220 (53.0)
주변사람들 추천	20 (16.7)	29 (9.8)	38 (10.9)	11 (16.4)	31 (11.4)	7 (10.6)	11 (14.5)	49 (11.8)
위치	4 (3.3)	9 (3.1)	10 (2.9)	3 (4.5)	8 (2.9)	2 (3.0)	3 (3.9)	13 (3.1)
보육 내용	23 (19.2)	53 (18.0)	64 (18.4)	12 (17.9)	45 (16.5)	16 (24.2)	15 (19.7)	76 (18.3)
야간,휴일 등 추가보육	0 (.0)	2 (.7)	2 (.6)	0 (.0)	1 (.4)	0 (.0)	1 (1.3)	2 (.5)
기타	0 (.0)	3 (1.0)	1 (.3)	2 (3.0)	2 (.7)	0 (.0)	1 (1.3)	3 (.7)
전체	120 (100.0)	295 (100.0)	348 (100.0)	67 (100.0)	273 (100.0)	66 (100.0)	76 (100.0)	415 (100.0)
$\chi^2(df)$	6.513(6) .368		8.640(6) .195		7.750(12) .804			

<표IV-55>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른 기관선택시 중요점

구분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전체
	고졸& 대학재학	대학교 졸업	대학생	그 외	0	1-100 미만	100 이상	
시설 상태	29 (11.8)	23 (13.6)	28 (12.0)	24 (13.2)	25 (10.4)	14 (19.7)	13 (12.5)	52 (12.5)
보육교사의 자질	139 (56.5)	81 (47.9)	135 (57.9)	85 (46.7)	136 (56.7)	36 (50.7)	48 (46.2)	220 (53.0)
주변사람들 추천	25 (10.2)	24 (14.2)	22 (9.4)	27 (14.8)	24 (10.0)	6 (8.5)	19 (18.3)	49 (11.8)
위치	7 (2.8)	6 (3.6)	5 (2.1)	8 (4.4)	8 (3.3)	3 (4.2)	2 (1.9)	13 (3.1)
보육 내용	45 (18.3)	31 (18.3)	42 (18.0)	34 (18.7)	43 (17.9)	12 (16.9)	21 (20.2)	76 (18.3)
야간,휴일 등 추가보육	1 (.4)	1 (.6)	1 (.4)	1 (.5)	2 (.8)	0 (.0)	0 (.0)	2 (.5)
기타	0 (.0)	3 (1.8)	0 (.0)	3 (1.6)	2 (.8)	0 (.0)	1 (1.0)	3 (.7)
전체	246 (100.0)	169 (100.0)	233 (100.0)	182 (100.0)	240 (100.0)	71 (100.0)	104 (100.0)	415 (100.0)
$\chi^2(df)$	7.636(6) .266		10.609(6) .101		13.581(12) .328			

<표III-54>과 <표III-55>에서는 기관을 선택할 때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기관선택시 중요점에 대한 질문의 항목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없었으나, 빈도적으로 '보육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220명(53%)이 대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논의, 결론 및 제언

1. 논의

예비부모들은 애착과 보살핌이 가장 중요할 영유아기 시기의 자녀교육을 함에 있어 부모 됨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이에 예비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어 첫째, 예비부모들의 영유아기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 둘째, 예비부모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 셋째,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넷째, 예비부모들의 자녀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총 415명의 예비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성별, 혼인여부, 거주지,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기초조사 8문항과 더불어 예비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의 27문항을 영역별 문항으로 구성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예비부모들에게 조사된 설문지는 SPSS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여 빈도와 백분율, 교차분할분석, 일원변량분석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부모들의 영유아기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기대하는 자녀수와 원하는 자녀의 성별, 자녀교육 형태, 중요한 점, 우선시 되어야 할 교육, 기본생활습관 및 인성교육의 방법, 자녀교육의 한 달 비용, 장래희망, 자녀교육에 영향을 주는 것 등의 인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기대하는 자녀수에 대해서는 '2명(55.2%)', '3명(29.4%)'의 응답률이 많았고, 원하는 성별에 대해서는 '성별에 상관없다(75.2%)'고 선택하였다. 자녀가 필요한 이유로는 '일차집단의 유대감(47.5%)', '창조·성취감(39.8%)'으로 나타났으며, 원하는 자녀교육 형태로는 '기관과 부부(부모)(32.0%)'와 '부부(부모)(28.7%)'의 항목을 선택하였다. 가장 우선해야 하는 교육으로는 '기본생활습관(44.8%)'과 '인성교육(42.7%)'이었다.

알맞다고 생각하는 한 달 사교육비는 '50만원미만(47.5%)'을 선택한 예비부모들이 많았다.

둘째, 예비부모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 가장 힘들 것이라 생각하는 항목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예비부모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이 '동등하다(88.4%)'고 여기는 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은 다르게 보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어머니의 역할로는 '건강 및 영양관리의 역할(29.0%)'과 '의논상대자 및 친구의 역할(27.7%)'을 선택하였고, 아버지의 역할은 '경제적 지원의 역할(30.6%)'과 '훈육적 역할(18.5%)', '자녀보호의 역할(17.8%)'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교육 시 가장 힘들 것이라 생각하는 항목에는 '경제적 부담(44.1%)'이라 응답하였다.

셋째,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예비부모교육 필요여부와 예비부모교육의 내용,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석의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예비부모교육은 '필요하다'라는 대다수의 의견이었고, 그 이유는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69.0%)', '자녀의 재능을 찾아주기 위하여(22.1%)'였다. 예비부모교육의 내용으로는 '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48.2%)'과 '아동발달 지도법(21.2%)'을 선택하였다. 예비부모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강좌(특강)(69.7%)', '인터넷, TV프로그램 등 매체를 통해(23.7%)'라는 응답을 하였다. 예비부모교육의 참석의지로는 '시간이 되면 참석(67.0%)'과 '무조건 참석(31.3%)'이라는 긍정적인 선택을 해주었으며, 예비부모교육의 적절시기로 '결혼 전(46.0%)'이라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예비부모들의 자녀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인식으로 교육하기 바라는 분야, 자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기관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 기관에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교육하기를 바라는 내용은 '인성(44.3%)'과 '기본생활습관(30.4%)'을 선택하였고,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교사(61.9%)'라는 응답이었으며, 다음으로 '또래 영유아(34.5%)'를 선택하였다. 기관에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유(50.1%)'와 '전문적인 가르침(37.8%)'을 선택하였다.

위 요약을 바탕으로 한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부모들의 영유아기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에 '2명', '3명'의 자녀를 기대하고, 성별에 상관없는 자녀를 낳는다는 의견이었다. '일차집단의 유대감'과 '창조·성취감'으로써 자녀가 필요하며, 원하는 자녀교육형태로 '기관과 부부(부모)'와 '부부(부모)'를 원하고 있었다. '인성'과 '건강 및 안전'을 가장 중요한 교육으로 여기고 있으며, 가장 우선해야하는 교육으로 '기본생활습관'과 '인성교육'이었다. 아이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부모의 교육·양육법'이었다.

이문옥·심미영(2011)의 연구에서 예비부모의 자녀출산에 대한 인식은 출산 계획이 있다는 의견이 98.9%로 자녀가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즐겁고, 자녀를 낳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하였으며, 황윤세(2005)의 연구에서는 부모 됨에 대한 동기로 '창조·성취감요인', '자기연장요인'을 선택하였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수는 2명인 경우가 많아 이 연구와 비슷한 결과였다.

이성림(2011)의 연구에서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영유아 가계의 약 17.52%로 그 비율이 낮고 보육 및 교육 시설을 이용하는 가계의 비율은 약 66.9%, 가족과 친지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13.44%,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약 2.89%였다. 이 연구의 자녀교육에 대해서 '부부(부모)' 이외에 '친인척지원'과 '기관'이 함께 자녀교육의 형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에 '기관'에 대한 예비부모들의 관심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유아기 자녀교육에 해당하는 '기관'은 예비부모들의 맞춤형 '기관'을 원할 것이며, 이에 맞게 여러 기관들이 생겨나 영유아기 자녀교육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여겨진다.

이 연구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교육은 '기본생활습관'과 '인성교육'으로 나타났다. 우남희·김영심·이은정·김현신(2009)의 연구에서도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육은 '기본생활습관교육'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인성교육'이었고, 이에 대해서 교육방법은 '가정에서 자연스럽게'와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속에서'를 선택하였다.

기본생활습관교육과 인성교육이 중요하고 우선해야 하는 교육으로 선택되었던 만큼 영유아기 자녀교육에 대해 기본생활습관과 인성교육에 대한 정보와 내용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가정에서 자연스러운 교육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영유아기 보육·교육으로 기관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육방법도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라 여겨진다.

이지현(2010)의 영아기 자녀를 둔 초보 어머니들의 양육관심사 연구를 정리하면 영아기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은 첫째,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안전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바른 수면 습관을 위한 노력과 아픈 아가를 위한 대처방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둘째, 아이의 발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놀잇감 선정과 놀이방법, 적절한 교육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셋째, 다른 지원보다도 남편들에게서 양육에 대한 지원을 많이 받고 싶어하지만, 남편들이 기대만큼 지원을 해주는 경우는 드물었다. 마지막으로 영아기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의 교육관의 형성 배경에는 어린 시절 어머니들의 부모님에 의한 양육경험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어떤 양육이 옳은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못 세우고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의지해서 양육수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도 아이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부모의 교육·양육법'인 만큼 자녀를 위한 충분한 교육·양육법을 습득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예비부모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대해 예비부모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이 동등하다고 여기는 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은 다르다고 보았다. 어머니의 역할은 '건강 및 영양관리의 역할'과 '의논상대자 및 친구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은 '경제적 지원의 역할'과 '훈육적역할', '자녀보호의 역할'로 보았다. 또한 자녀 교육 시 가장 힘들 것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났다.

유경애(2003)의 연구에서 자녀양육은 부모 모두 공동의 책임이라 응답하고 부모의 역할 중 아버지의 가장 큰 역할은 경제적 지원 등의 도구적 역할로 응답하였으며, 어머니의 가장 큰 역할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실제적 역할로 응답하였다. 우남희·김영심·이은정·김현신(2009)의 연구에서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힘들었던 점 혹은 힘들 것이라 예상되는 점에 대한 질문에 '양육 및 사교육비용(경제적부담)'이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시설이용 아동에게 무상보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이순용(2011)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녀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제적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셋째,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은 예비부모교육은 필요하며, 그 이유는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 '자녀의 재능을 찾아주기 위하여'였다. 예비부모교육의 내용으로는 '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과 '아동발달 지도법'을 원하며, '전문가강좌(특강)',

‘인터넷, TV프로그램 등 매체를 통해’ 예비부모교육을 습득하고자 하였다. 또한 예비부모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참석의지를 보여주었다.

정미애(2010)의 연구에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많이 느끼나,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부모 모두 시간이 없어서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아버지 집단은 부모참여 수업과 가정통신문을 선호하며, 어머니 집단은 부모참여수업과 부모 상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강좌(특강)’의 방법에 대해서는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좀 더 관심을 줄 수 있는 예비부모교육의 내용과 시간적으로 많이 참석 할 수 있는 방법의 예비부모교육형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비부모교육의 적절한 시기는 ‘결혼 전’으로 나타났다. 한세영·김기원·김주연·김연화·김지윤·안수희(2008)는 첫아이를 임신한 예비어머니들은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요구도가 높은 반면, 아동발달과 양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은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양육태도, 아동발달특징, 아동과의 의사소통, 아버지역할 및 부부관계의 중요성 등의 영역에 대해 부모교육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들을 위한 아동발달과 양육 및 부부관계에 관한 지식을 통합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은설·최윤경·조혜주·김선화(2010)의 연구에서 아동발달과 자녀-부모관계 이론 등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양육’이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영유아를 돌보는 방법의 현실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양육 실습을 포함하는 것을 장려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비부모들의 자녀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인식으로 교육하기를 바라는 내용은 ‘인성’과 ‘기본생활습관’이었고,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교사’와 ‘또래 영유아’로 나타났다. 기관에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유’와 ‘전문적인 가르침’을 선택하였다.

이순용(2011)의 연구에서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에 ‘사회성 발달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보육시설을 통해 또래끼리 함께 어울리는 경험으로 사회성 발달을 선호하고 다음으로 ‘올바른 예절교육’, ‘안전교육’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본 여구의 결과와는 상이했으며, 교육하기 바라는 내용에 대해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기관에서도 ‘인성’과 ‘기본생활습관’이라고 응답한 결과는 많은 예비부모들이 가정에서 바라는 교육을 기관에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기관에서는 ‘인성’과 ‘기본생활습관’ 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육해주어야 할 것이다.

정진태(2006)는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보육교사의 자질은 보육 전문 교육기관, 급여수준, 재교육(보수교육) 등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백승선(2010)의 연구에서는 좋은 교사는 사랑(친밀함, 온정, 돌봄), 이해, 교사와 학습자 간의 신뢰와 열정 등과 같은 인성을 기본으로 한 개인적 자질 뿐 아니라 교육 지식이나 기술, 가치관, 교육관 등의 전문적 자질을 조화롭게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렇듯 본 논문에서 기관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은 '보육교사의 자질'이지만, 이는 김미와(2005)의 유아교육기관 선정시 우선 고려 사항의 연구에서는 1순위로 '교육(보육)내용과 방법'과 '교육시설 및 환경'을 선택하여 본 논문과 차이를 보여주었다. 예비부모들은 영유아기 시기의 자녀들의 전문적인 보육·교육내용을 기관에 맡겨 도움을 받고자 하기에 기관에서는 여러 이유로 맡겨지는 영유아기 자녀들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가르침을 주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김미와(2005)의 연구에서는 99.3%로 대부분 유아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순용(2011)은 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보육과정을 다양화할 수 있고 모든 시설이용 아동에게 무상보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보육시설 실내외 환경정비 및 교재교구 구입 등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재정지원의 확대필요, 교사 대 아동의 적정비율의 조정의 필요, 보육의 질 강화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 등의 보육서비스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앞으로 점점 여성의 사회진출과 더불어 기관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보육·교육하기를 바라는 만큼 영·유아기의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질 높은 보육·교육을 원한다. 기관에 영유아기 자녀들을 맡겨야 하는 예비부모들이 많아지고, 교사의 높은 전문성을 기대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2. 결론 및 제언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모 됨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예비부모들의 영유아기 시기 자녀들의 전반적인 양육·교육에 대한 인식과 예비부모들이 생각하는 부모의 역할, 자녀들을 위해 요구하는 교육내용이나 방법과 더불어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대하는 자녀수는 '2명', '3명'이고, 성별에 관계없이 자녀를 원하며, 자녀가 필요한 이유로는 '일차집단의 유대감', '창조·성취감'이다. 원하는 자녀교육형태는 '기관과 부부(부모)'와 '부부(부모)'이고, 예비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에서는 '인성'과 '건강 및 안전'이며, 가장 우선해야 하는 교육으로는 '기본생활습관'과 '인성교육'이다. 알맞다고 생각하는 한 달 사교육비는 '50만원이하'이며, 아이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는 '부모의 교육·양육법'이다.

예비부모들은 영유아기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교육·양육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보를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모의 교육과 양육법은 영유아기 자녀들이 자라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비부모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교육과 양육법을 숙지하여야 할 것이며, 좀 더 나아가 자녀교육에 있어 교육과 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둘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이 동등하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은 다르며, 자녀 교육 시 가장 힘든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다.

부모가 되는 과정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 건강과 영양관리의 역할, 의논상대 및 친구의 역할과 더불어 경제적 지원의 역할, 훈육적 역할,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 등 부모의 역할을 숙지하고 부모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마음가짐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셋째, 예비부모교육은 필요하며, 그 이유는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 '자녀의 재능을 찾아주기 위하여'이다. 원하는 예비부모교육의 내용은 '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과 '아동발달 지도법'이며, 예비부모교육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강좌(특강)', '인터넷, TV프로그램 등 매체를 통해'이다.

예비부모교육의 적절한 내용, 방법, 시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하게 된다면 예비부모들이 부모가 되기 전 많은 정보를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육하기를 바라는 내용은 '인성'과 '기본생활습관'이고,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교사'이며, 기관에 보내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와 '전문적인 가르침'이다.

유아교육기관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이며, 예비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을 만들기 위하여 영·유아기의 보육·교육 시설의 확충, 질적·양적인 개선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보육·교육기관을 부모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방법을 제시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활용하고 앞으로 후속되어야 할 연구 과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예비부모들의 영유아기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부모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과의 인식 차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둘째, 예비부모들이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참석 의지는 많았으나, 시간이 없어서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예비부모들이 부모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를 제언한다.

셋째, 예비부모들이 영유아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양육 및 사교육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교육기관과 부모들이 상호협동적인 관계로 거듭나길 바라며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 강경희(2008).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인터넷 육아상담 실태 및 요구도 조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중돈·김동배(2010).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 학지사.
- 김남희(2010). 자녀에 대한 애착과 부모교육과의 관계 연구.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11-9).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양육신념, 자녀기대감과 부모역할지능 간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제16권 3호.**
- 김은설·최윤경·조혜주·김선화(2010-5). **예비부모교육 실태와 내실화 방안 연구**. 유아정책연구소.
- 김정미(2005). 대학생들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 **대한가정학회지 제43권 3호.**
- 김지은(1999).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도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 제32권 3호.**
- 김하림(2010).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한민국국회(2012) <http://likms.assembly.go.kr/law/>
- 손충기(2010).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 태영출판사.
- 손충기·백영균·박정환·문창배(2011). 내가 하는 통계분석 **SPSS 5판 DOS에서 WINDOWS 버전 18.0까지**. 서울 : 학지사.
- 박성연·유은희·한상미(2002). **무한한 가능성을 향한 첫 출발. 1-영아기**. 서울 : 교문사.
- 박성옥·강영자(2005). 부모역할 중요도와 수행의 어려움 및 자신감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1집.**
- 배지희·황인애·탁옥경(2007). 영유아기 자녀양육 및 교육자원에 대한 전업주부의 요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 백승선(2010). “좋은 교사”의 특성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상아(2009). 영유아기 애착과 교사-유아 관계가 유아의 사회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충석(2003). 보육시설 운영 및 교육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인식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남희·김영심·이은정·김현신(2009). 저 출산 시대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한국 어머니들의 인식 및 실태조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 유경애(2003). 오산대학생들의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학생생활연구 8호 p.76**
- 원성희·유영달(2006).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D.W.Winnicott의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1권 1호.**
- 이문옥·심미영(2011). 예비부모의 자녀출산 및 양육관·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6권 제4호.**
- 이병래(1991). 결혼 전 여성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래(2005). 예비부모로서의 대학생을 위한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 적용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 이성림(2011). 영유아 자녀 가계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 소비 실태. **생활과학 제14호.**
- 이순용(2011). 부모의 보육서비스 만족도 및 보육 욕구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연·이석호(2010).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정보 습득과 양육지식. **아동학회지 제31권 4호.**
- 이자형(2005). 영유아기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부모·자녀 건강학회지 제8권 제1호.**
- 이지현(2010). 영아기 자녀를 둔 초보 어머니들의 양육 관심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선영(2001). 대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제6권 제3호. p.76**

- 정미애(2010). 유아기 부·모의 부모교육 및 자녀양육 정보 요구 분석. **승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태(2006). 영유아 보육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복희(2011.9(-10)). [KICCE]육아정책포럼 영유아기 발달의 중요성과 정책적 시사점. 유아정책연구소.
- 조복희·현온강(1994). 한국 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제32권 5호.** p.98
- 허영림(2007). 대학생 을 위한 예비부모교육의 교육교과목개발연구. **교양교육연구 제1권 제2호.**
- 한세영·김기원·김주연·김연화·김지윤·안수희(2008),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도 조사연구. **한국아동학회 학술대회 포스터발표집 2008권 1호.**
- 황윤세(2005). 대학생들의 부모 됨에 대한 이해와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도 조사. **학생생활연구. 제11집.**
- Lee,E.L. , Wilsie, C.C. , Brestan-Knight, E. (2011). ***Using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to develop a pre-parent education modul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 Leung, C. , Tsang, S. , Dean, S. , Chow, P. (2009). ***Development and pilot evaluation of the Hands On Parent Empowerment (HOPE) project - a parent education programme to establish socially disadvantaged parents as facilitators of pre-school children's learning.*** JOURNAL OF CHILDRENS SERVICES
- Ponzetti, J.J. , Dulin, W. (1997). ***Parent Education in Washington State Even Start Family Literacy Programs.***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Abstract>

Recognition toward the infant education of pre-parent

Park, Ji Eun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Jung-Hwan*

This study is purposed to seek parenthood and parent's role by questionnaire asking what kind of interest do they represent for the child education, role of pre-parents, content of education that pre-parents require, what are their recognition toward child-care, education institute. For this we conducted questionnaire targeting 415 pre-parents and results are as followed.

First, as for expected number of child, '2 children' and '3 children' gained many reponses, as for gender, they selected 'don't care about gender'. The reason for having child is 'bond as first group', 'creativity', 'achievement', as for type of child education they selected 'institution and parent' and 'parent'.

The pre-parents consider the most important education are 'personality' and 'health and safety'. The priorities are 'basic life habit' and 'personality education'. The appropriate private education fees is 'under 50,000won' and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are 'parent's education and raising practice'. Second, the pre-parents represented that responsibility of education is equal between mother and father, but they regard their roles are different. The most challenging in child education, the pre-parents responded as 'financial burden'. Third, education of pre-parent is necessary, the reasons are 'responsibility as parent role', 'to find the child's talent'. As for content of pre-parent education are 'communication with children' and 'child development instruction'. As for method of pre-parent education, they responded 'special class', 'Internet, TV program and medium' and they

represented positive will to attend. Fourth, they selected 'personality' and 'basic life habit' as the contents what they want to be educated. 'Instructor' is the most influential to their children and the reason why they send their children to institution is 'financial reason' and the 'expertise instruction' is also important factor.

From this result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 pre-parents need to have interest to education and raising practice and make effort to explore the information. The parent's education and raising practice is the most influential for the infants and they must contemplate on basic education and raising practice, further they need to acquire expertise knowledge on education and raising practice.

Second, pre-parents need to accept the fact that they become parents with positive mind and contemplate on the role of parents and the need to have mind of devoted parents and interest of nutritional management, person to confide and friends as well as economical support, instructive, role of protecting children.

Third, if the pre-parent program is conducted with education content, method, time, it would be a good opportunity to have more information before become parents.

Lastly,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the infant-nursery and education institution's expansion, quality and quantity improvement and guide parents to choose the appropriate nursery, education institute.

[부록]

예비 부모들에 대한 영·유아기 자녀교육의 인식에 관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예비 부모들에 대한 영·유아기 자녀교육의 인식”이라는 석사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예비 부모들에 대한 영·유아기 자녀교육의 인식을 조사하여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맞춤형 교육, 사회가 지향하는 부모상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귀하가 주시는 설문 내용은 무기명으로 비밀이 보장 될 것이며, 저의 소중한 논문자료로서 이 연구의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내시어 정확한 자료가 되도록 한 질문도 빠뜨리지 마시고 평소의 생각을 솔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연구조사에 설문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활기찬 생활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구자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박지은

지도교수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박정환 교수

2011. 12

※ 귀하께서 해당하는 항목에 “○” 표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

1. 기대하는 자녀의 수는?

- ①1명 ②2명 ③3명 ④4명 이상

2. 자녀의 원하는 자녀의 성별은?

- ①성별에 상관없다 ②아들을 더 원한다 ③딸을 더 원한다

3. 자녀가 필요한 이유는?

- ①전통적가치(집안의 대를 이으며, 다음 사회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함)
 ②일차집단유대감(자녀를 통해서 가족과 세대 간의 친밀한 유대감 형성)
 ③자기연장(자녀를통하여 자신이 못다 이룬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에도 공헌)
 ④사회적지위(안정된 부부로 보임, 제대로 된 가족구조로 보는 사회적 기대)
 ⑤창조·성취감(보람과 재미, 인생의 경험, 자신의 인격도 성숙)
 ⑥기타 ()

4. 부모기 통념에 대한 믿음은?

내 용	반 응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자녀 키우기는 재미있다				
(2)유아는 늘 사랑스럽고 귀엽다				
(3)좋은 부모를 만나면 아이들은 훌륭하게 성장한다				
(4)자녀가 부모의 결혼 생활을 향상시킨다				
(5)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기르면 자녀는 바르게 성장한다				
(6)요즘 부모들은 옛날 부모들보다 부모역할을 못한다				
(7)자녀가 없는 부부는 좌절되고 불행하다				
(8)외자식은 외롭고 버릇이 없다				
(9)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10)모든 부모는 성인이다				
(11)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받는 편의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12)나의 자녀들은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 것이다				
(13)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충분히 쏟기만 하면 된다				
(14)편부모(부모 중 한사람이 없음) 가정은 문제가 있다				
(15)자녀가 성장하면 부모로서의 임무는 끝난다				
(16)자녀가 성장하여 집을 떠나면 부모들은 허탈해진다				

5. 원하는 영·유아기 자녀교육 형태는?
 ①기관 ②친인척·도우미 ③부부(부모) ④부부(부모)와 친인척지원
 ⑤기관과 친인척지원 ⑥기관과 부모
6. 영·유아기 자녀교육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① 건강 및 안전 ② 인성 ③ 지식(학벌) ④ 특기계발 ⑤ 미모
 ⑥ 기타 ()
7. 영·유아기 자녀들에게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교육은?
 ①한글 ②예·체능 ③외국어 ④기본생활습관 ⑤인성교육
 ⑥기타 ()
8. 영·유아기 자녀들에게 기본생활 습관 및 인성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은?
 ①가정에서 자연스럽게 ②영유아 보육·교육기관 ③학원에서 의도적으로
 ④교육필요없음 ⑤기타 ()
9. 영·유아기 동안 자녀에게 필요한 사교육은? (필요한 항목 모두 선택 가능)
 ①한글 ②영어 ③미술 ④음악 ⑤웅변 ⑥컴퓨터 ⑦한문
 ⑧무술(태권도, 검도 등) ⑨수학 ⑩독서 ⑪기타()
10. 영·유아기 자녀교육의 한달비용으로 알맞다고 생각하는 금액은?
 ①50만원미만 ②50~100만원 미만 ③100만원~150만원미만
 ④150만원~200만원미만 ⑤200만원이상
11. 우리 아이가 가장 되었으면 하는 장래희망은?
 ①아이가 바라는 것 ②공무원 ③의사,검사 ④선생님 ⑤사업가(CEO)
 ⑥예술분야(연예인, 스포츠선수, 예술가 등) ⑦부모의 직업 ⑧기타()
12. 영·유아기 자녀들이 자라는 데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①친구관계 ②형제관계 ③보육·교육기관 ④부모의 교육·양육법
 ⑤책이나 TV ⑥기타 ()

<예비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

1. 영유아기 자녀교육의 책임은?

- ①어머니가 대부분 ②아버지가 대부분 ③동등하게 ④기타 ()

2. 자녀에게 부모의 중요한 역할은? (각각 2개씩 선택)

역 할	어머니	아버지
(1)경제적 지원의 역할		
(2)사회 가치관 전달의 역할		
(3)훈육적 역할		
(4)의논상대자 및 친구의 역할		
(5)건강 및 영양관리의 역할		
(6)자녀보호의 역할		
(7)기타		

3. 영·유아기 자녀 교육 시 가장 힘들 것 같은 항목은?

- ①경제적부담 ②양육자 선정 ③부부간 양육관 차이 ④양육기관 선정
 ⑤육아지식 부족 ⑥신체적 소진 ⑦육아 스트레스 ⑧사회적 고립감
 ⑨경제 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 제한 ⑩자녀양육 지원 기관의 부족
 ⑪기타 ()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1. 예비부모교육 필요여부는?

- ①필요하다 ②필요하지 않다

1-1. 예비부모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 ①자녀의 재능을 제대로 찾아주기 위하여
 ②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하여
 ③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④좋은부모가 되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⑤기타 ()

2. 예비부모교육이 열린다면 참여하실 의향은?

- ①무조건 참여 ②무조건 불참 ③시간이 되면 참석 ④기타 ()

2-1. 참여하신다면 원하는 예비부모교육의 내용은?

- ①문제행동지도 ②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 ③아동발달에 기초한 지도법
- ④임신·태교·출산·피임 ⑤자녀학습지도 ⑥아동건강관리
- ⑦기본생활습관 지도법 ⑧가정법률지식 ⑨기타 ()

2-2. 원하는 예비부모 교육방법은?

- ①교과목 ②전문가 강좌(특강) ③인터넷, TV프로그램등 매체를 통해
- ④기타 ()

2-3. 예비부모 교육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 ①교육 내용 ②강사 능력 ③교육 방식 ④기타 ()

2-4. 예비부모교육이 이루어지기에 적절한 시기는?

- ①10대 ②대학시절 ③결혼 전 ④결혼 후 ⑤임신 후 ⑥기타 ()

<예비부모들의 자녀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인식>

1. 부모들이 보육시설&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서 중점적으로 교육하기를 바라는 분야?

- ①영양 ②보호·교육 ③인성 ④기본생활습관

2. 자녀들에게 보육·교육기관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 ①시설 상태 ②교사 ③함께 생활하는 영·유아 ④기타()

3. 기관에서 교사로부터 가르치기를 바라는 교육법은?

- ①무조건 사랑하며 안아주고 혼내면 안됨 (잘했어...)
- ②타이르기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예요~ 상냥하게)
- ③말로써 꾸중 (이렇게 하면 되겠니?: 안되겠니? 단호하게)
- ④때때로 체벌도 필요 (이렇게하면 안되는거야! 잘못했으면 혼나야되!!)
- ⑤기타 ()

4. 자녀들을 보육·교육기관에 보내는 이유는?

- ①경제적 이유(맞벌이) ②전문적인 가르침
- ③사회적 인식(학교처럼 의무교육인 것 같아서) ④기타 ()

5. 자녀가 다닐 **보육·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①시설 상태 ②보육교사의 자질 ③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추천 ④ 위치
 ⑤보육 내용 ⑥야간보육, 휴일보육 등 추가보육 ⑦기타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귀하의 연령 : () 세
2. 귀하의 성별은?
 ①남성 ②여성
3. 귀하의 혼인여부는?
 ①미혼 ②결혼 ③결혼 후 첫째아 임신 중
4. 귀하의 거주지는?
 ①제주시 동지역 ②서귀포시 동지역 ③제주시 읍·면지역
 ④서귀포시 읍·면지역 ⑤제주도 외 지역 (지역이름 :)
5. 귀하의 학력은?
 ①고졸 이하 ②대학교 재학 (전공 :) ③대학교 졸업 (전공 :)
6. 귀하의 직업형태
 ①대학생 ②무직, 가정주부 ③기술직 ④전문직 ⑤공무원 ⑥기타 직업
7.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 () 만원
8. 귀하의 가구 월평균 소득은? : () 만원

- 감사합니다 -